

# 리아호나



**제자로서 결혼을  
옹호함, 18, 28, 80쪽**

하나님의 표준에 거하는 안전함, 24쪽  
핀, 포스팅, 트윗 하라: 온 세상을  
진리로 덮으십시오, 48쪽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16~17, 20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빛으로 우뚝 서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  
온유와 겸손

특집 기사

- 18 제자로서 결혼을 옹호함  
러셀 엠 넬슨 장로  
우리는 전통적 결혼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 24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표준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표준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 오늘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 28 가족 선언문: 문화적 혼돈을 초월함  
브루스 시 하펜 장로  
결혼과 부모 역할은 우리 사회적  
융단의 설계에 꼭 들어가는 실이다.
- 34 후기 성도 남성과 이혼  
브렌트 샤먼  
이혼의 비극 중에는 그 이후에도  
반드시 자녀와 복음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5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겸손에 대한 우리의 믿음
- 12 교회 소식
- 14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영광스러운 재회  
수잔 엘 워너와 시 테리 워너
- 16 교회에서 봉사함  
가정 복음 교육의 힘  
제프 비 말러
- 17 단상  
창문 너머의 수영장  
베키 헤이너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조셉은 내게 하늘의 영원한 질서를  
가르쳤다  
팔리 피 프랫 장로

표지  
앞 사진: 레슬리 넬슨 앞 표지 내부 사진: grapix/  
iStock/Thinkstock. 뒤 표지 내부: Photograph by  
mycola/iStock/Thinkstock.

42



**42** 인내: 기다림 이상의 의미  
힐러리 올슨

인내란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교리와 성약 123:17)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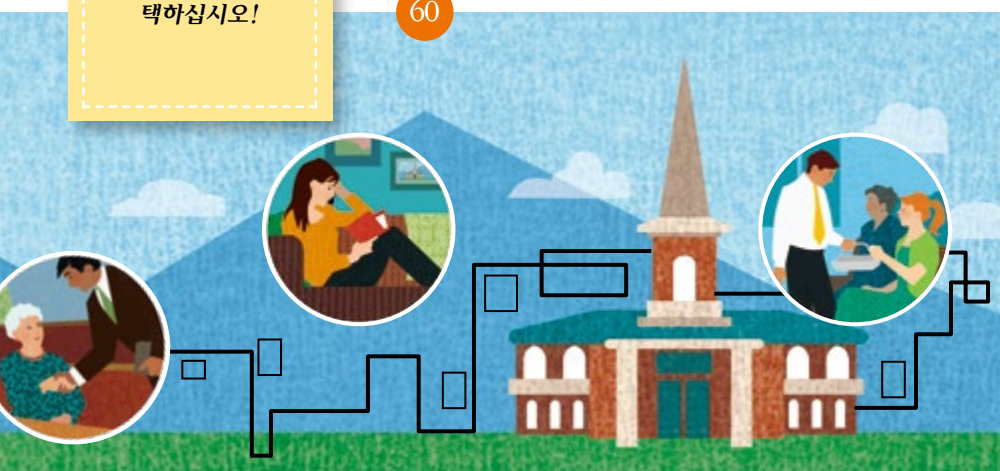
**46** 선교 사업인가, 돈인가?

젤시 펠리스 노구에이라  
선교 사업은 재정적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의를  
택하십시오!

60



**48** 소셜 미디어로 전 세계를 덮으십시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새로운 기술로  
우리는 세상에 진리가 넘쳐나도록  
도울 수 있다.

**54** 질의응답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56** 행복한 가족이 되는 비결  
민디 앤 레빗  
우리 가족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가족 선언문에  
있습니다.

**60** 안식일은 즐거운 날  
동유럽의 청소년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들려줄 것이다.

**62** 신앙으로 기다리며  
미카엘리 두아르테 다 실바  
언젠가 우리 식구들도 교회에  
들어올까?

64



**64** 셸리의 경주  
젠 핀보로우  
셸리는 감동으로부터 신권 축복을  
받을 때까지 아빠에게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66** 도와주세요! 누군가 이혼을 하려  
해요  
캐서린 넬슨  
부모님이 이혼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몇 가지

**68** 자, 이제 네가 솔래야!  
애미 제인 레빗  
로렌은 용기를 내어 앨리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70** 의를 위해 서라

**71** 음악: 용감하게 의 행하라  
조지 엘 테일러, 에이 시 스미스

**72** 힘든 선택  
아만다 미카엘리스  
나쁜 비디오 게임 앞에서 디에고는  
힘든 선택을 해야 했다.

**74** 특별한 증인  
자유롭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쿠엔틴 엘 쿡 장로

**75**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76** 클라라와 초등학교 프로그램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클라라는 처음으로 참석한 초등학교  
프로그램에서 많은 역할로 긴장했다.

**78** 경전 속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2015년 8월호, 제52권, 제8호

리아호나 12568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벨슨, 말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이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디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담당자: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타,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더 폴리트, 로리 폴러, 캐린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트, 민디 앤 레빗,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슨 오카르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머러사 윌슨

편집자 인턴: 엘리스 탠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넷슨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들리,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지식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렛,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데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위크

배부 책임자: 스티브 알 크리스토퍼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i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3호, 제52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석회사 보전재 감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mailto: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ids.or.kr](http://www.li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ids.org](http://liahona.lids.org)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거나 이메일 주소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투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ugust 2015 Vol. 39 No. 8.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ids.org](http://store.li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제자로서 결혼을 옹호함”, 18쪽: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결혼의 옹호자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본다. 자녀와 함께 장래 결혼에 대해서, 또는 결혼에 대한 교회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자녀들과 나눈 적이 있는가? 결혼에 대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가? 가정의 밤을 하는 동안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을 이용해서 이 주제들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를 진리로 휘젓으십시오”, 48쪽: 이 기사를 읽은 후 베드나 장로가 말한 제안에 따라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가족과 함께 토론한다. 페이스북에 총관리 역원의 인용문을 올리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은 (#LDSconf 해시태그를 시작한 회원들과 같이) 복음과 관련된 사진이나 인용문을 올릴 때 자신의 해시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ids.org](http://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정 복음 교육, 16

가족 역사, 39

가족, 14, 17, 18, 28, 56, 62, 80

간증, 4, 48

개종, 14, 62

결혼, 18, 28, 80

겸손, 7, 10

고결성, 24

괴롭힘, 68

교만, 10

교회 참석, 38, 60

기도, 39, 40, 56, 64, 76

모범, 4, 48, 68

몰몬경, 41

부모 분분, 28, 34

사랑, 18, 56, 68

선교 사업, 41, 46, 48

선택의지, 24, 70, 72, 74

성신, 40

성전 사업, 14, 62

소셜 미디어, 48

순종, 24, 70

신권 축복, 64

십일조, 46

안식일, 60

예수 그리스도, 7, 78

용기, 64, 71, 72, 76

용서, 54, 56, 66, 75

우정, 68, 72

이혼, 34, 54, 64, 66

인내, 42, 62

일, 56

표준, 24, 70

합당성, 24

회개, 56, 75

희생, 4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저**는 성전 헌납과 함께 열리는 많은 축하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영예를 누리 왔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훌륭했는데, 가장 최근에 참석한 지난 11월에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행사도 그러했습니다.

축하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훌륭하고 기억할 만한 공연을 보여 줍니다. 저는 작년에 피닉스에서 축하 행사가 있기 직전에 참여자들에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 빛들이”(빌립보서 2:15)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나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전 등대로 우뚝 서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복음 빛을 비춰야 할 부름이 있습니다. 빛이 활활 타올라 밝게 비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디모데전서 4:12)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데 필요한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이 우리 삶에 닿이 될 때까지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앙을 얻고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전을 읽고 연구하며,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경전 공부와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필수적인 두 가지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의 빛이 외부 영향력과 때로 냉엄한 삶의 현실 때문에 희미해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십 대라는 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탄이 유혹하고 꾀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최적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 빛으로 우뚝 서십시오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한다면 “어둠에 비치는 빛”(교리와 성약 6:21)이시며 우리의 귀감이시자 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여드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받들어야 할 빛이십니다.(제3니파이 18:24 참조)

구주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빛을 발할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매일 그런 기회가 주위에 가득합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를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학급 친구, 직장 동료, 그저 아는 사람, 혹은 전혀 모르는 타인 등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된다면 주위 사람들이 특별한 영을 느껴 여러분과 어울리며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해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배움의 문, 이해의 문, 하나님 왕국에서의 봉사의 문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활짝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그들 내부에 키워 주십시오. 그들에게 덕과 신앙 안에서 걸어가고, 기도하며, 하늘을 변함없는 뜻으로 바라볼 의지를 심어 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섬기고자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빛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해 볼 수 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수반하는가? 그들의 빛이 특히 밝았을 때와 그 빛을 밝게

빛나도록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빛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직장 동료, 또는 가족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런 후 그 사람과 함께 빛을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



### 빛의 등대

**몬** 스 회장은 교회의 청소년에게는 “성전 등대로 우뚝 서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복음 빛을 비춰야 할 부름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친다. 몬스 회장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제시한다.

- 복음을 나눈다
- 믿는다
- 신앙을 키운다
-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된다
- 여러분의 간증이 자기 인생의 닻이 될 때까지 계속 키운다
- 경전을 읽고 공부한다



- 자주 꾸준히 기도한다
- 봉사한다
- 순종한다

이들 각 분야에 대해 1~5점까지 점수를 매겨 자신을 평가해 본다. 점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은 경전에서 관련 주제를 공부하거나 LDS.org에서 그 주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주제를 공부한 후에는 이들 분야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실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하** 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와 경전 읽기와 같은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아래 있는 별에 적어 넣어 보세요. 처음 두 개의 별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채워 놓았습니다. 별에 색칠을 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 신앙, 가족, 구제

###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성역에서 가장 감미롭고도 강력했던 순간은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때였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요한복음 13:4~5).

구주께서 이 의식을 소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자 선생인 분께서 자신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극히 온유하게 자신들을 섬기시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배우길 원하셨던 교훈을 설명해 주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4~15)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 온유와 겸손

구주의 거룩한 속성을 특징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누가복음 22:26~27).

“구주는 겸손과 순종의 힘을 상징하는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경전에 포함된 말씀 중 가장 거룩한 말씀은 아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는 간단한 말씀일 것입니다.”<sup>1</sup>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항상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칠십인인 율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중요한 덕성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힘과 평온, 건강한 자긍심, 자제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sup>2</sup> 이런 태도를 발전시키려 노력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겸손의 힘, 즉 인생의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힘, 화평의 힘, 희망의 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간증으로 고동치는 마음의 힘, 그리고 구속의 힘을 받게 됩니다.”<sup>3</sup>

### 보충 성구

마태복음 26:39; 요한복음 5:30;  
모사이야서 3:19; 힐라맨서 3:35

### 주

1. 리처드 시 에즐리, “겸손의 힘을 부여받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9쪽.
2. 율리세스 소아레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쪽.
3. 리처드 시 에즐리, “겸손의 힘을 부여받다”, 99쪽.

### 생각해 볼 점

겸손함은 어떻게 구주와 같은 사랑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2015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5년 4월 연차 대회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앞으로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의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리 살펴보기



## 성스러운 안식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기록하게 합니까?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그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한 저의 선택들을 매우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안식일에 대한 사랑이 싹트며, 안식일에 대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안식일은 진실로 즐거운 날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30, 132쪽

## 선지자의 약속



## 금식 헌금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금식을 하고, 우리의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을 통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후한 금식 헌금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

“… 여러분과 제가 이번 달에 낸 금식 헌금의 일부는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그 누군가가 안도를 느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안도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식 헌금은 사람들을 먹고 입히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입니다. 금식 헌금은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바쳐진 헌금의 결실은 바로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뻗치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제일회장단 제 1보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3, 24쪽





## 겸손에 대한 우리의 믿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둡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는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모든 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키는 데 방해 요인이 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피해야 할 한 가지 죄는 교만이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를 다른 많은 죄로 이끌기 때문이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는] 대체로 교만을 자기 중심, 자만, 자랑,

거만함 또는 오만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죄의 요소이지만, 중심, 또는 핵심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적인 양상은 적대감,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sup>1</sup>

하나님을 적대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 교만한 사람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sup>2</sup>

이웃을 향한 적대감은 “결점 찾기, 험담, 비난, 불평, 분수에 넘는 생활, 질투, 탐심, 배은망덕, 용서하지 않고 시기함”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sup>3</sup>

교만은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우리가 하는 봉사를 제한한다. 벤슨 회장은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유순함입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sup>4</sup>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합시다.”<sup>5</sup>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 준다. ■

경전에는 잠언 16장 18절, 에스겔 16장 49~50절, 교리와 성약 23편 1절, 38편 39절 등과 같이 교만을 경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2014), 232쪽.
2.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232쪽.
3.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235쪽.
4.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238쪽.
5.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229, 238쪽.



### 가장 겸손한 사람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많은 일을 이루신 분은 또한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몇 가지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이루셨으며, 그분께서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56

참조) 어떤 사람이 그분을 ‘선하’다고 했을 때,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며 그러한 칭찬의 말을 사양하셨습니다.(마가복음 10:17~18 참조)”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진실함에 대하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83쪽.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겸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권고와 교정을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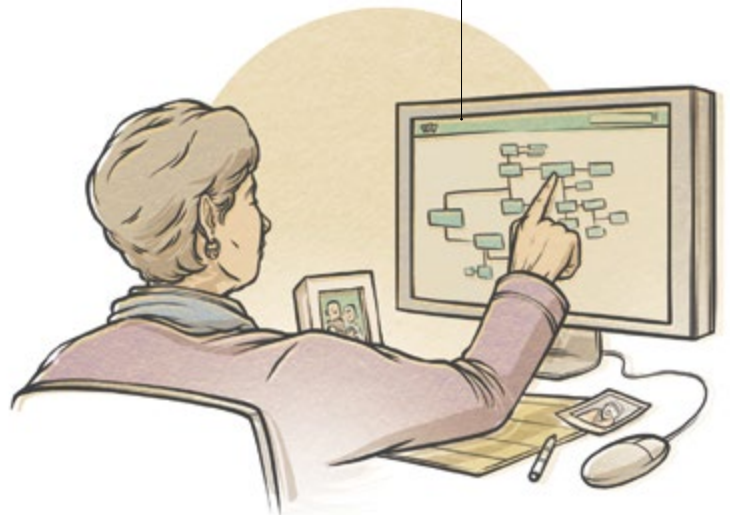
이타적인 봉사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기도한다



선교사로 봉사한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성전을 더욱  
자주 방문한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스라 태프트 벤슨(2014),  
238~239쪽에서 발췌함.

# 교회 소식

news.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볼 수 있다.

##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2015년 8월 1일자로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 또는 제이 정원회 소속이다.

칠십인은 계시에 따라 부름받으며,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전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보조한다.

“칠십인의 역사는 실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설명했다. 칠십인에 관한 첫 번째 참고 성구는

출애굽기 24:1에서 찾을 수 있는 데, 그 후에 민수기 11장 16~17, 25절에서 모세를 도울 칠십 명을 모으라는 말씀이 다시 언급된다.

필멸의 성역을 베푸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칠십인을 불러 열두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말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마태복음 10:1, 16~17; 누가복음 10장 참조)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을] ...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칠십인이 포함됩니다.”라고 팩커 회장은 말씀했다.(신앙개조 제6조 참조) 오늘날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칠십인은 십이사도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팩커 회장은 “칠십인은 위임을 통해 십이사도가 지시한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팩커, “십이사도와 칠십인, 제1부: 계시 및 칠십인의 역할” (비디오)에서, LDS.org.
2. 보이드 케이 팩커, “십이사도와 칠십인”에서.

###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전 지역 보조



엘 휘트니  
클레이튼  
유타 북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남



도널드 엘  
홀스트롬  
미 북동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미 북서  
미 서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아이다호  
미 중앙



우리세스 소아레스  
미 남동



린 지 로빈스  
미 남서

### 아프리카 동남



스탠리 지  
엘리스  
제1보좌



칼 비 쿡  
회장



케빈 에스  
해밀턴  
제2보좌

### 아프리카 서



터렌스 엠 빈슨  
제1보좌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회장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제2보좌

### 아시아



랜디 디 펄크  
제1보좌



게릿 더블유 공  
회장



치 홍 (샘) 왕  
제2보좌



## 북 아시아



가즈히코  
야마시타  
**제1보좌**



스cott 디  
와이팅  
**회장**



최윤환  
**제2보좌**

## 브라질



자이로  
마자가르디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제2보좌**

## 카리브 해 제도



클라우디오 디  
지빅  
**제1보좌**



제이 데본 코니쉬  
**회장**



우고 이  
마르티네스  
**제2보좌**

## 중미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1보좌**



케빈 알 던컨  
**회장**



호세 엘 알론소  
**제2보좌**

## 유럽



폴 브이 존슨  
**제1보좌**



패트릭 키아론  
**회장**



티모시 제이  
다익스  
**제2보좌**

## 유럽 동



외르크  
클레빈가트  
**제1보좌**



브루스 디 포터  
**회장**



래리 에스 캐처  
**제2보좌**

## 멕시코



폴 비 파이퍼  
**제1보좌**



벤자민 데  
호요스  
**회장**



아날포  
발렌주엘라  
**제2보좌**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래리 알 로렌스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교회 본부에서 관리함

## 태평양



오 빈센트  
할레크  
**제1보좌**



케빈 더블유  
피어슨  
**회장**



에스 기포드  
닐슨  
**제2보좌**

## 필리핀



세인 엠 보웬  
**제1보좌**



이안 에스 아던  
**회장**



앨런 디 헤이니  
**제2보좌**

## 남미 서북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제1보좌**



후안 에이  
우세다  
**회장**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제2보좌**

## 남미 남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제1보좌**



윌터 에프  
곤잘레스  
**회장**



호세 에이  
테제이라  
**제2보좌**

## 영광스러운 재회

수잔 엘 워너와 시 테리 워너

주님께서 한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성전으로 이끄시어 수십 년간의 생이별과 마음의 고통이 끝났다.

**존** 에코우멘사는 2012년 4월의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가나 아크라 성전에 들어섰다. 지금은 80대의 연로한 이 형제는 당시 혼자 거주하던 엔코코에서 한 무리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었다. 일행은 성전 이용자를 위한 인근 숙소에서 밤을 보내고 성전에서 이틀간 봉사할 계획이었다.

에코우멘사 형제가 예비 의식에 참여하려고 성전 안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한 형제가 옆에 와서 앉았다. 그 젊은 형제는 나이가 54세였고, 그날 아침에 아내와 함께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의식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비 의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에코우멘사 형제가 물었다.

“세콘디에서 왔습니다.” 그 형제가 대답했다.

“세콘디의 어느 동네인가요?” 에코우멘사 형제가 물었다.

“케탄입니다.” 그 젊은 형제가 대답했다. “학교가 여럿 있는 지역이요.”



대화가 계속되자, 두 사람 모두 이 대화 속에서 신기한 점들을 발견했다.

점점 더 커져 가는 확신에 가슴이 벅차 오른 그 젊은 형제는 에코우멘사 형제를 바라보았다. “형제님이 제 아버지시네요.” 그는 단언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존 에코우멘사입니다.”

“제 이름과 똑같아요.” 아들이 대답했다.

성전에서 봉사한 뒤에 두 사람은 해의 왕국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자신들의





삶을 연결해 보고 가족 간의 사랑을 되살렸다. 에코우멘사 이세의 모든 언행은 예의 바르고 적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자기 부친이 떠나야 했던 이유와 그간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다 알고 나서야 부친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거의 50년 전에 에코우멘사 일세 형제는 한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할머니는 당시에 그 부족을 다스릴 권한을 지닌 최고 연장자의 여성 족장이었다. 불행하게도 그 여성 족장은 존과 자기 손녀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다. 할머니의 고집 때문에 그 부부는 장남인 존 이세가 네다섯 살 되었을 때에, 결국 헤어졌다. 존

이세는 자기 증조모를 열심히 일하는 강한 여성으로만 알고 있었지, 거의 50년 동안 생부와의 모든 관계를 박탈한 권력자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강제로 가족과 헤어지면서 말

그대로 모든 연결 고리는 단절되었다. 전화나 우편 제도의 미비로 존 일세는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었다. 일자리를 찾다 보니 그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약 1963년부터 1989년까지는 만케심에 살며 조그만 페인트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거기서 살다 아다로 이사했고, 거기서 건물 도색을 그에게 맡겼던 한 여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받았다. 에코우멘사 일세 형제는 1991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부모의 결혼이 깨졌을 때 에코우멘사 이세 형제는 너무 어려서 가족의 그런 상황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이따금씩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와 “판박이”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

존 이세는 성장해 결혼을 했고, 그는 아내인 데보라와 함께 다닐 교회를 찾기로 했다. 존은 가나 아크라에서 가나 대학교에 다닐 때 서가에 놓인 리아호나 잡지를 보았다. 그는 잡지를 집어 들었고 그 책의 내용에 흥미를 느꼈다. 존은 발행인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점에 주목했다.

존이 학교에서 세컨디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자기 친구가 알려 준 한 교회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 말하고 싶어했다. 아내는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알려 주었다. 존은 자기가 대학교에서 본 잡지를 발행한 교회와 이름이 같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존과 데보라는 복음을 배우고 1999년에 침례를 받았다. 십 년 뒤에 두 사람은 가나 아크라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고, 다섯 자녀 중에서 어린 세 자녀도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에 성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알아보면서 눈물의 상봉을 한 것이었다. 그들이 따로따로 교회에 들어와서, 두 사람 모두 그 아름다운 아침에 성전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살며, 가나 아크라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50년간의 생이별 끝에 성전에서 상봉했다.**



# 가정 복음 교육의 힘

제프 비 말러

우리는 문도 열어 주지 않는 가족에게 어떻게 가정 복음을 할 수 있었나?

나는 나보다 연장자이시며 헌신적인 가정 복음 교사이신 에릭슨 형제님과 함께 가정 복음을 하도록 지명받았다. 그분은 내게 시간 약속을 잡게 했고, 나는 개의치 않았다.

대상 가족 중에 라이트 가족(이름 변경)이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은 가족이었다. 내가 집으로 전화를 하자 라이트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나는 에릭슨 형제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렸다. 다음 달에 에릭슨 형제님은 내게 다시 라이트 가족에게 전화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라이트 형제님이 전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렸다. 에릭슨 형제님은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라이트 형제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그에게 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가정 복음 동반자가 전화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매달 전화로 가정 복음 교육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러자고 했다.

그 이후 나는 매달 라이트 형제님 댁에 전화를 드렸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라이트 형제님은 “전화했으니 됐죠.”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점에 대해 꽤 넘치 않았고, 에릭슨 형제님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에릭슨 형제님은 우리가 라이트 가족을 위해 금식하자고 하셨다. 나는 동의했고, 우리는 어느 일요일에 라이트 형제님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다. 다음 날 아침, 직장에 가느라 라이트 형제님 집을 지나가다가 라이트 형제님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차 뒷바퀴 아래에 장난감 트럭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서서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는 내게 감사해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형제님의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

그리고는 직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형제님이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나는 에릭슨 형제님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렸다. 에릭슨

형제님은 라이트 형제님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저녁 가정 복음 약속을 잡으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라이트 형제님은 우리와 잘 통했고 우리를 잘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 가족을 방문하여 좋은 시간을 보냈고 다음 약속도 했다. 나는 금식과 기도,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더 큰 간증을 갖고 그 집을 나섰다.

그 주 후반에 우리는 라이트 형제님이 전임 선교사들에게 15살 난 딸을 가르쳐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아빠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자신이 침례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달 동안 기도해 왔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라이트 형제님은 결국 딸이 침례 받는 것을 허락했다. 딸아이의 침례는 라이트 형제님이 직접 하셨다.

나는 에릭슨 형제님이 영에 조화를 이뤘던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이 경험을 하면서 그분의 통찰력 덕분에 헌신적인 가정 복음의 힘과 가능성에 대해 더 큰 간증을 얻게 되었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 창문 너머의 수영장

베키 헤이너

우리의 가족 관계는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며 복음대로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휴가가 끝나 가고 있었다. 아침에 와플을 먹으며 우리는 5시간을 고되게 운전하여 집으로 가기 전에 호텔에서 어떻게 최대한 시간을 멋지게 보낼지 계획했다. 남편은 세 어린 딸들을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마지막으로 놀게 해 주기로 했다. 나는 체력단련실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기로 했다.

내가 택한 러닝머신 앞에는 수영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벽면 크기의 창문이 있었다. 조금 후에 나는 수영장으로 가고 있는 한 가족을, 즉 우리 가족을 보았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수영장 물로 뛰어드는 통에 수건, 신발, 티셔츠 등이 도처에 널려졌다. 보통 때에는, 솔직히 좀 성가시지만 내가 뒤를 따라다니며 옷가지와 신발들을 모으곤 했다. 이번에는 내 앞에 있는 영화 스크린 같은 대형 창문을 통해 가족들을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돌아가는 벨트에 리듬을

맞춰 뛰면서 나는 그들을 지켜 보았다.

함께 웃고 놀면서 모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보면서 가족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말다툼과,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한 감정으로 실망했던 때를 생각해 냈다. 하지만 나는 함께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고 있었다. 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딸아이가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반복해서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 아이가 일생을 통해 저렇게 뛰어내리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번 그 자기를 받아 주시리라는 믿음을 저 아이가 갖기를 바랐다. 나는 매번 뛰어내릴 때마다 저 아이가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 신뢰를 배우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딸아이는 수영 기술을 완벽히 익히려 하고 있었다. 나는 가족의 격려로 어떻게 그 애가 계속 노력하게 되는지를 보았다. 그 애의 생애에서 좀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와 같은 지지가 필요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딸 아이가 물에 풍덩 빠지는 것이 보였다. 그 애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물을 튀기며 물에서 나와 의자로 갔다. 가족들은 바로 그 애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족 모두 그 애가 다시 합류하도록 애정 어린 격려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 애는 다시 합류했고 나는 그 애의 미래에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 애가 항상 가족의 사랑 안에서 견딜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다.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고 복음대로 생활할 능력을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니파이의 이렇게 기록했다. “주께서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니라”(니파이전서 16:29) 가족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물론,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가르치고, 훈련하고, 사랑하는 노력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중요하다.

나만의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러닝머신을 끄고 가족들이 옷가지를 모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때때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던 작은 노력들을 계속 하리라고 다시 새롭게 결심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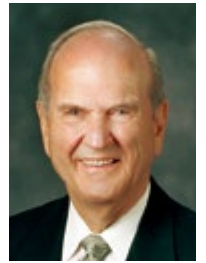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삽화: 앨런 칸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제자로서 결혼을 옹호함

주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결혼의 옹호자들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회는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강** 한 동반자 관계에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참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혼자서 하는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참된 동반자와 함께 해내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제이 메이오 박사와 그의 동생 찰스 에이치 메이오 박사는 함께 메이오 의원을 설립했습니다. 변호사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동반자 관계인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이든 지속적인 향상은 동의와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반자들은 통찰과 노력을 공유하는 기술,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유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동반자들은 완전한 충성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그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일조하는 대가로 개인의 자아를 억누릅니다. 위대한 동반자 관계는 자기 고유의 독특한 속성을 개발하는 각 동반자에 달려 있습니다.

## 덕의 수호자

이제 저는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인봉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 잠시 안녕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저는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떠나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바라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자신한테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였지, 혹은 좋은 아내요 좋은 어머니였지, 또는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지, 또는 그 사람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지, 혹은 그 사람은 겸손하고 근면하였지, 혹은 그는 유덕한 사람이었지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수호자는 결혼과 가족입니다. 순결과 정절의 덕을 지킬 때 특히 더 그러한데, 이 두 가지 덕은 지속적이고도 온전한 만족감을 주는 결혼 동반자 관계 및 가족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무엇인가 함께 성취하고 함께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녀를 지상에 데려오려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역할을 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뚜렷이 다르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어머니와 아버지 슬하에서 자랄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sup>1</sup>

우리는 결혼의 정의에 관한 논쟁에 점점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동료, 친구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하신 결혼의 중요성에 관한 논리적이고도 영감받은 진리를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이나 가족으로서 설득력 있는 모범을 보여 그러한 논쟁에서 주님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상황을 예견하였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곧이어 그는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1~5)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한 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12).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이 위태로운

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제3니파이 12:10)

요컨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로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날, 어느 때고 옳고 그른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에서 시작된 오랜 싸움이며, 그 싸움은 날마다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품성의 고유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 시간제 제자는 없다

편안하고 조용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일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시간제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다고 이르셨습니다.(마태복음 16:24; 마가복음 8:34; 고리와 성약 56:2; 112:14 참조) 그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과 그분의 계획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물몬서 8:38 참조) 현대의 역사상 인기 있는 그들 편으로 들어오라는 그들 목소리에 솔깃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온의 젊은이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분명하고도 친절하게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할 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또한 디모데후서 1:8 참조).

주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결혼의 옹호자들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회는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로마서 2:5; 열마서 33:22; 이터서 11:20;

교리와 성약 88:104; 133:38 참조)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결혼의 미래는 기꺼이 주님을 엄숙하게 증거하며,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에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에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보호가 임합니다. 베냐민도 이와 같이 일했습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모사이야서 5:7; 또한 8절 참조)

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했던 세리 두 자매님이 최근에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자가 되는 길의 핵심은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마다 ‘항상

우리 시대에 더욱 많이 부여되는 기회 중 하나는 결혼의 신성한 본질에 관한 진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도리로 저야  
할 짐은 막중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결혼의  
옹호자로 나설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겠다고 맺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중매체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킬지 선택할 때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끊임없는 대중 문화의 향유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려할 때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나 갈등의 와중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평가들이 그분의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조롱할 때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들었음을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sup>2</sup>

두 자매님의 메시지는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잘못될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삶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그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성공도 영원히 올바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sup>3</sup>

####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어디에 가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엄숙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더욱 많이 부여되는 기회 중 하나는 결혼의 신성한 본질에 관한 진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교리에 입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창세기 2:24)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창세기



3:20; 또한 모세서 4:26 참조)

하나님은 모든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결혼은 판사나 입법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뇌 집단이 만들어 낸 것도, 국민 투표로 만들어진 것도, 파워블로거나 권위자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닙니다. 로비스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간음과 탐욕을 금합니다.(출애굽기 20:14, 17; 신명기 5:18, 21 참조)

그와 같은 고대의 계명은 나중에 신약 시대와(마태복음 5:27~28; 19:18; 로마서 13:9 참조) 물론경 시대(모사이야서 13:22, 24; 제3니파이 12:27 참조)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이렇게 재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우리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참된 친밀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결합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는 진리로 강화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맺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고결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성약에 완전히 충실하려면 외설물, 욕정 또는 어떤 형태의 학대도 금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혼인법을 바꾸려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자 결혼의 영원한 본질과 목적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관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도덕이라 밝히신 것을 인간이 도덕적인 것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합법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한 자애심으로”<sup>4</sup> 모든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합니다. 그렇더라도 신성한 교리를 변경하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 사랑은 순종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아울러 그들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는 순결하게 생활하고 결혼 후에는 완전한 정절을 보이는 등,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요한복음 14:15, 21; 요한일서 5:2; 교리와 성약 46:9; 124:87 참조) 경전은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남성과 여성은 거룩하게 승인된 친밀함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레위기 26:15~20; 시편 89:31~32; 마태복음 5:19 참조)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열망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될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완전히 충실함으로써 남편과 아내는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2:7, 19 참조)

제자된 도리로 저야 할 짐은 막중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결혼의 옹호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고 충실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교리와 성약 84:88 참조) 우리 가족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이사야 49:25; 교리와 성약 98:37 참조)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속죄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덕택에 마침내는 불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그분과 우리 가족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014년 8월 24일 전해진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식 축사 “Disciples of Christ—Defenders of Marriage(결혼의 옹호자들 -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인용.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 에서 볼 수 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2. Sheri L. Dew, “Sweet above All That Is Sweet”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address, May 1, 2014), 7, [ce.byu.edu/cw/womensconference/transcripts.php](http://ce.byu.edu/cw/womensconference/transcripts.php).
3. Howard W. Hunter, “Fear Not, Little Flock”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r. 14, 1989), 2,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
4. Abraham Lincoln, “Second Inaugural Address,” Mar. 4, 1865.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칠십인

#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표준

하나님의 표준은 불변하며, 아무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서 크게 놀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잡은 첫 직장은 비행기를 제작하는 굴지의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저는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회사는 각 부품에 대한 규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품은 모양과 크기, 재료, 허용 오차를 비롯해 모든 표준을 충족시키는 인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부품이 표준을 충족해야 비행기 조립을 위한 창고에 입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표준에 미달하는 부품은 불합격 처리되어 공급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부품 공급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허용 오차를 비롯해 모든 요건을 이해하고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표준에 미달하는 부품으로 제작된 비행기에 일부러 타시겠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표준을 능가하는 부품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표준에 미달하는 행동을 일부러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만 승영을 위한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서 사용하는 *허용 오차(Tolerance)*라는 영어 단어에는 관용이라는 뜻도 있는데,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문화 또는 행동을 참아 주거나 받아들이는 맥락에서 현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사회 또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의가 아닌 공학적 정의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허용 오차*는 정의된 표준에서 허용되는 오차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제작된 부품의 허용 오차가 13센티미터,  $\pm 0.0025$ 센티미터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품은 금괴처럼 순도가 99.9퍼센트인 특정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승영에 합당하도록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 표준과 심판

구원의 표준을 계명이라 부르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들 표준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항상 적용됩니다. 이것들은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상황에 선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명은 승영을 위한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관용을 정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행기 부품에 대한 인증 절차와 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비행기 부품에 대한 품질 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통해 우리가 인증될 것인지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허용 오차 내의 표준을 알고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드신 비유에서 열 처녀가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다섯 처녀는



늦게 왔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마태복음 25:1~13 참조)

이 비유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려워집니다. 열 처녀는 모두 혼인 잔치에 초대 받았으며 신랑이 올 때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는 오직 반만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sup>1</sup>

처음 다섯 처녀는 표준을 충족시켰는데,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를 위한 계획은 육신을 얻고, 경험하고, 의식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표준은 세워졌고, 허용 오차는 승영을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영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 표준과 선택의지

우리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분을 본따 빚어진 다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하나님은 우리가 꼭 행해야 할 것들과 꼭 지켜야 하는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런 표준을 받아들이고 지킬 것인지 결정하도록 도덕적 선택의지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지만, 표준이나 우리 결정의 결과를 바꾸는 권한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 표준이 있고 또 선택하는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각자가 그 표준을 충족하는지,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표준과 그 허용 오차 내에서 생활했는지 알기 위해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의 교리를 통해 우리는 결함을 바로잡거나 고칠 수 있지만,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의 원리를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표준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십 대 시절에 저는 여름이면 미국 와이오밍 주에 있는 할아버지 목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목장은 8km<sup>2</sup>가 넘는 드넓은 땅으로, 양과 소를 키웠는데, 부속 토지도 있었습니다. 목장을 운영하려면 많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리 센터도 한참 가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장비를 세심하게 유지보수하고 일터로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점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장이 날 때면 수리 센터가 주로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제가 선택의 결과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걷는 것보다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항상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처럼 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과 경계선을 밀어내며 그 범위 안에 딱 머물러는 사람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과 반대 세력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을 잊거나 변경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대신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대신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니파이후서 15:20)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이 변경되었다고 우리를 믿게 하려는 사람에게 속아서도 안 되며, 그들 말에 귀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그 표준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규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행기 부품 공급업자가 부품 규격이나 허용 오차에 변경을 추진할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품을 사용해 제작된 비행기에는 아무도 탑승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행기 제작사가 그런 부품에 퇴짜를 놓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생각이 짧거나 편협하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작사가 협박을 받거나 누가 제작사를 못살게 굴더라도 입증될 수 없는 부품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사업과 그런 비행기에 탑승하게 될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표준은 불변하며, 아무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서 크게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표준에 미달하는 부품으로 제작된 비행기를 일부러 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표준에 미달하는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승영을 위한 자격을 갖추 수 있습니다.

### 표준의 충족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는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표준이 세워지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 각자는 그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표준을 충족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그 증거로, 그것은 “성도로서 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리로 주는”(교리와 성약 89:3)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유혹을 받지 않게”(교리와 성약 64:20) 할 것이라고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해야]”(앨마서 13:28)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이[여러분]에게 있고 이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58:28)

여러분은 표준과 허용 오차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영을 위한 자격을 갖추 능력이 있습니다.

### 성신의 인도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고 또 경전 및 현대의 선지자들 말씀에 있는 교리를 공부하고 실천해 그 표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성신입니다. 성신을 통해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니파이후서 32:2~3 참조) 성신의 도움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모로나이서 7:16~18 참조)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위안과 인도를 줄 수 있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표준을 충족시키려 노력할 때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표준에 미달하는 부품으로 제작된 비행기를 일부러 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승영을 위한 자격을 갖추 수 있습니다. ■

2012년 11월 1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의 영적 모임에서 전한 “표준과 허용 오차” 말씀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byui.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쪽.



브루스 시 하펜  
장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함

# 가족 선언문: 문화적 혼돈을 초월함





이 기사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발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펜 장로님이 준비한 두 차례의 연재 기사 가운데 첫 번째 기사이다. 두 번째 기사는 리야호나 2015년 9월호에 실릴 것이다.

**고** 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85세가 되기 바로 전인 1995년 6월에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가장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회장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의 가족 생활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저는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sup>1</sup>

석 달 뒤 힝클리 회장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sup>2</sup>

주님의 선지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 가운데 교회 내의 불안정한 가정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이 엄숙한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분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그릇된 부모로 시작해서 잘못 인도되는 자녀라는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가족 문제”<sup>3</sup>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선언문은 단순하게 틀에 박힌 친가족적 표현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진정한 예언과 같은 경고였습니다. 스무 해가 지난 오늘날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1995년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탐구해 보기에 앞서, 그동안 어떻게 현대 문화가 오늘날 이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보편적 사랑 이야기

인류가 가장 오랜 세월 꿈꿔 온 이야깃거리는 한결같이 비슷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다. 그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그와 같은 보편적 사랑 이야기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핵심으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치 북극성처럼 여전히

**결혼과 부모 역할에 대한 영원한 헌신은 우리의 사회적 응단의 설계에 중추적인 두 가닥 실과 같다.**



우리 교회 회원 대부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소망과 목적,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껴안고 늘 함께하며 “다시 나가지 아니할!”(요한계시록 3:12)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일반적으로 사회는 이와 같이 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선천적인 소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매듭지음”을 통하여 비교적 영구적인 가족 단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는]”(모사이야서 18:21) 가운데 그와 같은 매듭들이 사회라고 하는 직물을 함께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세대 동안 그 직물은 점점 더 풀려 버려서 우리는 일부 작가들이 말하는 “결혼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 다수는 더는 결혼을 장기적 약속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는 일조차 일시적인 개인적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부모 역할에 대한 영원한 헌신은 우리의 사회적 용단의 설계에 중추적인 두 가닥 실과 같습니다. 그 실이 풀릴 때 직물까지 풀어지므로, 우리는 보편적 사랑 이야기의 줄거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아버지요, 교회 회원이요, 가족법 교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풀림을 목도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발아한 인권 운동으로 평등 및 개인의 권리, 해방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 이론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의 도움으로 미국은 인종 차별이라는 곤혹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미국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각 시민들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권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합법적인 분류는 오히려 혜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은 나이를 근거로 어린아이들에게 이롭게 그들을 차별합니다. 그들은 투표할 수 없으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구속력을 지닌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수년간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어린이들이 지닌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로부터 어린이와 사회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성인이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 법률은 또한 결혼과 혈족 관계에 기초한 관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신이나 무연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가 결혼을 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사회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그들의 안정된 자녀들을 기르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은 사회의 미래 동력과 지속성,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각 요소가 중요한 구실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법원은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가족법을 해석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 및 법률 시스템은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가족법 변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500년 역사상 결혼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태도 면에서 가장 큰 문화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 법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러한 변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법도 그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 문화적 변이

요컨대 관련 주장자들은 유력한 개인-해방 사상을 사용하여 시작하여 오랜 세월 안정적 가족 구조에서의 사회 및 어린이 권익을 지지해 온 법 체제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 개인주의적 사상들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원과 입법부는 그런 사상 상당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1968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이 인정되었고, 곧이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혼법상 결혼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었고, 간음이나 학대와 같은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결혼 유지를 통한 사회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사회 이익을 대표하는 판사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고안되었던 바와 같이 무과실 이혼은 합당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과실과는 무관하게 회복하기 어렵게 된 결혼 손상을 이혼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여 이혼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특정 결혼이 치료 단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는 이론상, 여전히 사회 이익을 대표하는 판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 법원 판사들은 부부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결국에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자 하는 쪽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변화로 더 큰 문화적 방향이 가속화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결혼을 비교적 영구적인 사회 제도로 더는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대로 끝낼 수 있어 일시적이며 사적인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사회에 주는 손상은 차치하고라도,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진심으로 고려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판사들이 혼인 서약을 준행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의 권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자, 기혼 부부들은 그들이 맺은 개인적 서약이 특별한 사회적



도덕적 의미가 없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서약이 개인적 취향을 침해할 때, 이제 사람들은 더 쉽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모순적일지라도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비구속적인 서약”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태도를 반영하듯, 법원은 미혼 아버지들의 친권을 확대해 주었으며, 미혼인 개인들에게도 자녀 양육권과 입양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양친 가족이 오래전부터,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족법상 누려왔던 혜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자녀 양육 환경은 대부분, 결혼을 한 친부모가 이끄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경험과 사회 과학 연구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으며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혼모 혹은 미혼부 사례들로 말미암아 미혼 동거 및 혼외 출산율은 폭증하게 되었으며, 다시 그것은 또 다른 미혼 부모를 낳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개별 여성에게 낙태를 택할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생명이 시작되는가 하는 가치 판단적 문제를 그때까지 공동으로 결정했던 선출직 의원들과 태아들로 대표되는 사회 이익에 대하여 오랜 시간 존재한 문화적 믿음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과실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이어 가게 됩니다. 동성 결혼은 어렵고도



통렬한 주제가 되었지만, 단 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동성 결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지속된 결혼 개념이 지난 40년간 그 공공 가치를 상당 부분 잃어버린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이 동성 결혼의 아이디어가 국제 무대에 불쑥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2001년 “개인적인 자율성” 이론에 근거한 미국 최초의 친-동성 결혼 판례는 순전히 무과실 이혼을 낳았던 바로 그 개인주의적 법 개념을 이어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무과실 이혼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결혼을 종결할 개인적 권리를 지지할 때, 어쩌면 그와 같은 원리는 (동성 결혼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특정 결혼을 시작할 개인적 권리까지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특정 사회의 중심적인 사회 제도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과 자녀가 사회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망각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연민과 관용으로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단합과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뒹어지[는]” 가운데 결혼이라는 “매듭지음”으로 비교적 영구적인 가족 단위가 이루어져 사회라고 하는 직물을 함께 잡아 주었습니다.**





촉진하는 것이 그 역사적 목적이었던 결혼이라는 법 개념을 바꾸어 그와 같은 행위를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결혼과 자녀에 대한 영향

이제 이와 같은 변화가 결혼과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1965년경부터 미국의 이혼율은 그동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간 떨어졌는데, 그것은 그동안 미혼 부부의 수가 약 15배 증가하였고 그들의 잦은 과정이 이혼율에 잡히지 않은 데 그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초혼 전체의 절반 가량이 이혼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약 60퍼센트가 그와 같이 막을 내립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sup>5</sup>

오늘날 미국 아이들의 40퍼센트가 미혼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1960년에 그 숫자는 5퍼센트였습니다.<sup>6</sup> 오늘날 10대의 약 50퍼센트가 혼외 출산을 “해 볼 만한 생활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up>7</sup> 1960년 이래 편모나 편부 슬하의 자녀 비율은 8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4배가 늘었습니다.<sup>8</sup> 오늘날 미국 결혼의 절반 이상은 혼외 동거가 선행한 결혼입니다.<sup>9</sup> 1960년대에는 매우 이상했던 일들이 이제는 지극히 정상인 일로 변했습니다.

이제 유럽 인구의 80퍼센트가 혼외 동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첫째 아이의 82퍼센트가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sup>10</sup> 최근에 독일에서 살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유럽 사람들 가운데 결혼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프랑스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이들 앞에서 결혼은 그 마력을 잃었습니다.” 점점 더 그들은 “사랑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사회는 그들의 결혼이나 자녀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up>11</sup>

그러나 이혼 부모나 미혼 부모의 자녀들은 양친 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심각한 행동적·정서적·발달적 문제를 약 세 배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 복리 측면에서 이 아이들의 형편은 훨씬 더 나쁩니다. 것처럼 [나쁜 형편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의 요소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인하며, 다음과 같이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한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50년간

- 청소년 범죄가 6배로 늘어남
- 모든 형태의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는 5배로 증가함
- 약물 남용에서 식이 장애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장애가 전체적으로 악화됨. 아동 우울증이 1,000퍼센트 증가함
-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났으며, 점점 더 아이들은 가난을 물려받게 됨<sup>12</sup>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1995년에 핑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그분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분을 번민케 한 동향들은 이제 눈에 띄게 더 나빠졌습니다. 타임지의 한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의 붕괴만큼 뚜렷하게 이 나라에게 인간적 불행과 역경을 가져다주는 단일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어머니의 재정적 기반을 해치며, 그것을 감당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즉 이 나라의 하류 계층에게 특정한 재앙과 함께 찾아온다 ...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과는 분리된 부모를 갖게 되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은 더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의 관계를 내다버린다.”<sup>13</sup>

##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

풀어진 사회적 용단 가운데 누더기가 된 황금 실 한 올은 문제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뼈 중의 뼈, 우리 살 중의 살, 즉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후손, 즉 자녀와 출산과 영원한 사랑의 유대에 관한 진실하고 거룩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신비롭게 심금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1836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5; 조셉 스미스-역사 1:39; 또한 말라기 4:6 참조)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에게 돌이키기보다는 서로에게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저주가 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따라서 사회, 즉 온 땅은) 참으로 이상과 같이 이야기한 각 문제로 “황폐하게”(깊이 떨어지고, 쓸모없게 되고, 쓸쓸하도록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교리는 명백합니다. 게다가 수년간의 연구로 그것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가족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그들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부모가 되기에 앞서 먼저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더 많이, 더욱 더 많이 희생하여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녀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친부모가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혼외 출산이나 선택적 낙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혼은 정당화되며, 입양은 종종 하늘이 보내준 선물인 것처럼, 얼마간의 예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족에 관한 1995년 선언문이 이를 완벽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sup>14</sup>

하지만 우리는 집단적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거나 심지어 최근의 기억에서조차 신비로운 심금의 울림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성한 가족 사랑의 지속적인 유대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우리 행복의 적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며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훌륭한 결혼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운 문화가 결혼의 의미에 관해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 자신과 서로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경전과 성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복음의 영원한 관점은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라도 가장 만족스럽고 거룩한 경험이 될 때까지 우리가 현대적 결혼의 난국을 초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2014년 1월 31일 솔트레이크시티의 'J. Reuben Clark Law Society' 연례 노변의 모임에서 전해진 말씀 "Marriage, Family Law, and the Temple"에서 발췌함

## 주

1. Dell Van Orden, "Pres. Hinckley Notes His 85th Birthday, Reminisces about Life," *Church News*, June 24, 1995, 6; 강조체 추가.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Gordon B. Hinckley, Sarah Jane Weaver, "President Hinckley Warns against Family Breakups," *Deseret News*, Apr. 23, 2003, [deseretnews.com](http://deseretnews.com).
4. Caitlin Flanagan, "Why Marriage Matters," *Time*, July 13, 2009, 47 참조.
5. [census.gov/compendia/statab/2011/tables/11s1335.pdf](http://census.gov/compendia/statab/2011/tables/11s1335.pdf) 참조; 또한 Alan J. Hawkins, *The Forever Initiative: A Feasible Public Policy Agenda to Help Couples Form and Sustain Healthy Marriages and Relationships* (2013), 19 참조.
6. "Disastrous Illegitimacy Trends," *Washington Times*, Dec. 1, 2006, [washingtontimes.com](http://washingtontimes.com) 참조.
7. *The State of Our Unions: Marriage in America 2012* (2012), 101, 102 참조.
8. "On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1960-2012,"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ofm.wa.gov/trends/social/fig204.asp](http://ofm.wa.gov/trends/social/fig204.asp) 참조.
9. Bruce C. Hafen, *Covenant Hearts: Why Marriage Matters and How to Make It Last* (2013), 227 참조.
10. Noelle Knox, "Nordic Family Ties Don't Mean Tying the Knot," *USA Today*, Dec. 16, 2004, 15, [usatoday.com](http://usatoday.com) 참조.
11. *Report of the Mission of Inquiry on the Family and the Rights of Children*, a study commission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France, Jan. 25, 2006, 32.
12. Hafen, *Covenant Hearts*, 226-27 참조.
13. Flanagan, "Why Marriage Matters," 47; emphasis added.
1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

**경전과 성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복음의 영원한 관점은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라도 가장  
만족스럽고 거룩한 경험이 될 때까지  
우리가 현대적 결혼의 난국을 초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경험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과 희망을  
필요로 한다.



# 후기 성도 남성 그리고 이혼

브렌트 사먼

은퇴한 상담자, LDS 가족 서비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게 하는 것입니다.”<sup>1</sup>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이 영감 어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일어나고 있다. 이혼은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주는데 당사자들은 충격, 부인, 혼란,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 방해나 식사 습관의 변화와 같은 신체적 증상도 겪게 된다.

상담자로서 나는 경험을 통해 이혼 시 많은 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경험을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결혼 생활 중에 남성들은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혼 시에 받는 충격으로 불안정한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다.
-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려는 경향이 적어서 경험을 통해 배울 가능성이 더 적을 수 있다.
- 남성들은 행위 중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는 경향이 적다. 그 대신에 장시간 일을 한다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 한다.
- 재정적인 근심과 자존심에 입은 타격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술을 입에 대거나 교회에서 저활동이 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남자들도 있다.

이혼을 극복하는 유일한 안전한 길은 복음에 충실하게 남는 것이다. 이혼을 건강하게 이겨 내려면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친절함과 자신감과 자아 존중심을 유지하며, 계속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고통스런 감정을 참아내고,

단단한 결혼 관계가 이상적이지만 불행히도 이혼으로 끝나는 결혼도 있다. 이혼을 했을 때,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 안에서 강해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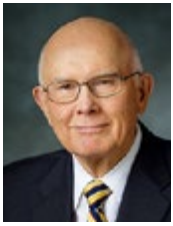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공정하고, 양심을 품지 않으며, 굳건한 영적인 기초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은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셨으며”(교리와 성약 122:8) 그분의 속죄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들어 올려 주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혼 과정에서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간에 회개하고 용서하기 전까지는 치유받을 수 없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는 불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용서받고 용서합니다.”<sup>2</sup>

## 자녀와 관계를 유지함

어떤 일도 자녀 양육권만큼 험겨루기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방문자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럴 때 아버지는 자신이 무력하다 느끼고 제도 때문에 통제당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가능성이나 다른 가족 행위가 없는 한,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을 배운다.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을 거리나 재혼



##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희망

“우리는 파국을 맞게 된 부분적, 혹은 주된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혼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혼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을 알며 속죄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과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치유의 능력과 희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1쪽.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할당된 시간이 원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방문하는 시간이 긍정적이 되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꺼이 자녀들의 행복과 안정을 본인의 상한 감정보다 우선시할 때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혼에 좀 더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기

어떤 남성들은 이혼처럼 자신의 간증을 흔들여 놓은 것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교회 활동에 충실했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남자들에게 특히 더 해당된다. 이러한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이혼한 남성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여길 거라고 믿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계속 교회 활동에 참여할 때, 그들은 정확한 원리를 접하게 되고 주변에 걱정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교회 회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가능성이 많다. 인내하면서 먼저 다가가라. 도움을 받을 네트워크를 찾으라. 정원회 회장,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하고 가능하다면 LDS 가족 서비스와 같은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본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한 사람도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환영받는 존재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혼은 했지만 훌륭한 교회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셨다. “이혼한 회원이 중대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합당성에 있어서 다른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표준에 따라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sup>3</sup>

### 어려움을 통해 성장함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다시는 절대로 겪고 싶진 않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말한다. 그들은 재기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상담한 한 남성은 자신의 그러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이혼한 남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이혼한 사람이지요. 결코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일어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목표는 이제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충실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내 자녀들과 양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신앙의 방패”,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궁핍히 여기는 자가 궁핍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7쪽.
3. 델린 에이치 옥스, “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0쪽.



# 이혼의 상처

데이비드 폴

세 자녀의 이혼한 아버지

**캐** 나다 해군 장병으로서 나는 적군이나 기타 재난과의 조우 뒤에 “사후 점검”을 하는 훈련을 받았다. 참여자들이 추가 부상이나 불행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전 생애를 통해, 특히 이혼과 같은 시련 중에 우리는 사후 점검을 통하여 배움과 성장의 여러 방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분량의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필요하다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어느 부분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어느 부분에 이전 배우자의 의지가 관계했는지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행동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정신적, 영적, 정서적 건강 상태도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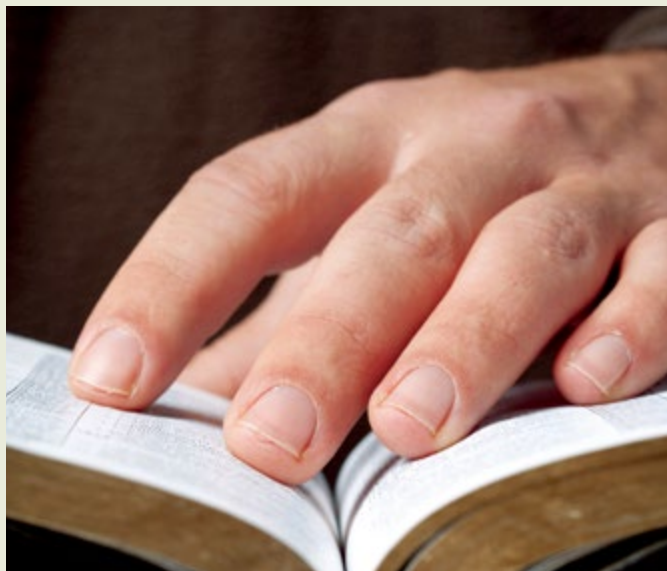
깨우친 것들을 적용하며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추구함으로써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닦으며 치유 과정을 북돋울 수 있다.

## 구주의 속죄에 다가감

전쟁에는 반드시 무서운 상처들이 따른다. 이 상처들은 아주 깊고도 아플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혼으로 생긴 마음과 영혼의 상처 또한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데,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가 지니는 치유 권능의 도움을 받아 회복될 수 있다. 교회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신권 축복을 부탁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성전에 자주 가야 한다. 치유 과정은 대개 길지만, 우리 삶에 영이 함께할 때 그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

이혼하고 첫 해는 굉장히 어렵다. 한때 희망의 중심이었던 관계가 날아가 버린 데 대해 슬퍼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여러 감정과 도전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같다. 거룩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읽으며 기도하고 봉사하며 성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치유 과정에 우리 소임을 다한다. 그 길이 길게 보일 수 있지만 약속은 확실하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혼의 기쁨과 화평을 포함하여 우리가 약속받은 모든 축복과 더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 재혼으로 나아감

데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나 혼자라고 해도 (그리고 구주와 함께라면) 괜찮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가고 있는 길이 행복하다면, 대적이 나를 빗나가게 하기는 어려우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불건전하게 의존해 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도 일정 수준의 정서적, 낭만적 단계까지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불건전한 관계도 위로를 주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누군가와 너무 빨리 그러한 관계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다. 속도에 주의하도록 한다.

## 이혼한 남성을 도움

이혼을 겪은 사람은 우리 영혼을 위한 이 전쟁의 전장에 있는 베테랑과도 같다. 그들은 우리의 존중과 사랑, 이해와 지지와 수용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들에게 따뜻한 인도와 격려를 베풀도록 한다. 그들에 대한 신앙을 갖고, 구주께서 상한 마음과 영혼의 조각들을 치유할 그분의 시간표를 갖고 계심을 잊지 않는다. 때가 되면 치유와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글쓴이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산다.



# 교회가 어디 있는데?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후기 성도 집회소를 찾는 일은 때론 도전과도 같은 일이었다. 대부분 예고도 없이 나는 새로운 도시나 심지어 새로운 나라로 전출을 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에 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었는데, 아침 8시 30분에 대령님은 뜻하지 않은 휴가를 하루 주셨다. 나는 이미 군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그대로 부대 친구에게 교회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가 대여한 차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친구: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는데?”

나: “나도 모르지. 이 도시를 전에와 본 적이 없거든. 그렇지만 도심에 9시

15분 전까지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 “어떻게?” 9시 15분 전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나: “그때쯤에는 교회로 가는 물론 선교사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친구: “전에 여기와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

나: “맞아, 와 본 적이 없어.”

친구: “그런데 이곳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나: “여기에 예배당과 물론 선교사들이 있을 거야.”

친구: “좋아, 여기가 도심이야. 지금이 9시 15분 전인데 선교사들은 보이지 않는데.”

나: “저기 있잖아.”

친구: “어디? 저 멀리 작게 보이는,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 말이야? 여기선 그들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선교사들을 따라잡았고, 나는 차에서 내려 선교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농담도 주고 받고, 함께 웃었다.

나: “태워 줘서 고마워.”

친구: “넌 그들을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 “맞아, 방금 만났어.”

친구: “대개 사람들은 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잖아.”

나: “나중에 설명해 줄게.”

친구: “이곳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널 몇 시에 데리러 와야



## 가족 역사 센터에서 드린 기도

하는지 아직 말해 주지 않았어.”

나: “모임은 세 시간 동안 해. 모임이 끝나면 한 가족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지. 그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잠시 대화를 나눌 거고, 그 가족이 나를 부대까지 데려다줄 거야.”

친구: “누가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데려다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친구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인사했다.

모임은 훌륭했다. 나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 준 세 가족 중 첫 번째 가족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저녁 식사 동안 우리는 네덜란드의 교회 성장에 대한 고무적인 대화를 나눴다.

나는 내 생애 동안 여러 번 교회 회원들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때론 궁전에서 만났고, 때론 초라한 오두막에서 만났다. 때론 버려진 먼지 나는 막사에서, 때론 병원 예배당에서도 만났다. 때론 대형 텐트에서, 때론 노천에서 만났다.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항상 노력을 다해 교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8:20) ■

디 잭슨, 미국 아이다호

“네가 도심에 9시 15분 전까지 데려다 줘.”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럼 예배당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있는 우리 지부의 가족 역사 상담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내 조상들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깊게 느꼈다. 그 일은 무척 어려웠다. 나는 내 조상들이 누구이고 이탈리아 어느 곳에서 왔는지 찾고자 거의 매일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

2006년에는 가족 역사 센터를 관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 계속 실망감을 느꼈다. 조상을 찾으려는 남편의 노력이 성공했을 때, 내 낙담은 더욱 깊어졌다. 그 해에 루벤은 이탈리아 마세라타 산 지네시오에 살았던 조상 5,000명 이상을 찾아냈다.

어느 날 오후, 루벤은 가족 역사 센터에 있는 마이크로필름에서 조상들을 연이어 찾아냈다. 그는 기쁨에 넘쳐 “또 한 분 찾았어!” 하고 연신 외쳤다. 나는 낙담하여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내 가족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슬픔을 드러냈다. 남편은 내 고통을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 우리는 성신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어 내 조상을 위한 사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청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루벤은 불현듯 이탈리아 성이 나오는 웹사이트를 기억해 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그 사이트를 확인해 보았다. 우리는 몇 분 내에 북부 이탈리아의 루티조라는 작은 마을 전화 번호부에서 내 결혼 전 성인 고스란 이름을 가진 네 사람을

찾아냈다.

나는 곧바로 그들 각각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같은 성을 가졌지만 그 가족은 아니라며 답장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가신 내 고모 할머니 한 분을 알고 있다며, 아직 살아 있는 다른 친척과 연결해 주겠노라고 했다.

몇 달 후인 2006년 12월, 우리는 장거리 전화를 받았다.

통화감은 흐릿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잔나 고스 씨입니까?”

내가 “네, 맞아요.” 하고 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사촌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인 지오바니 바티스타 투바로는 마리아 고모 할머니의 아들이었다.

2008년 3월에는 지오바니와 그의 아내 미리암이 우리를 만나러 아르헨티나로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과 가족 역사 사업을 소개했고, 우리는 며칠에 걸쳐 앞서 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6세대에 이르는 조상들의 이름에 그들의 얼굴과 역사가 더해졌다.

나는 가족 역사를 통해 주님의 사업에서 한 중요한 부분에 공헌할 수 있었다. 나는 또한 가족 역사 센터에서 드린 신앙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내 조상들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

수잔나 막달레나 고스 데 모레시,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라!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당시 나는 독신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는 여러 날을 쉬기도 했다. 어느 휴일 날, 나는 상호부조회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혹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쭙 보았다. 회장님은 애니타(가명)라는 연로한 자매님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매님은 최근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홀로 계시는 분이였다. 이미 만나 본 적이 있는 분이였기에 나는 그 자매님을 방문하게 되어 기뻐했다.

나는 전화를 하고서 자매님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자매님은 점심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곧이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매님은 유머 감각이 탁월했고, 즐겨 웃는 분이였으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점심 뒤에 자매님은 피곤하다면서, 휠체어에서 내려 침대에 눕도록 도와달라고 하셨다. 나는 자매님에게 이불을 덮어 드렸다. 불현듯, 내가 익히 들어 온 그 나지막한 음성이 조용하게 울렸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라, 어서!”

애니타는 병원을 싫어했으며, 집으로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자매님에게 지금 몸 상태를 여쭙어 보았다. 자매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조금 피곤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자매님의 머리맡에서 물러나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시작하자 예의 목소리가 거둬 울렸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라. 바로 지금 데려가라!”

나는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의사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나는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 친구도 기도를 해 보더니 내게 주어진 속삭임을 따르라고 했다.

애니타는 병원으로 데려간다는 말만 듣고도 화를 냈지만, 그래도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를 타고 온 두 의료인이 방으로 들어와 체온과 혈압 등을 확인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바로 자매님을 바퀴 달린 것들에 실어 구급차에 태워 급히 떠났다.

나는 내 차를 타고 따라갔고 병원에 도착해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곧이어 의사가 나왔다. 그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환자가 당신이 오기 전에 넘어졌었다는 말을 하지 않던가요?”

나는 “아니오.” 하고 답했다.

의사는 애니타가 비장을 다쳐 내출혈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다.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없었더라면 자매님은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후회와 기쁨이 엇갈렸다. 처음에 머뭇거리던 것은 후회되었지만, 결국은 성신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정말 기뻐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여 이 부상당한 자매님을 돕게 하셨으며,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나를 자매님에게 보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드렸다.

이 경험 뒤에 나는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속삭임을 주신다. 언제나 나는 이와 같은 속삭임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간구한다. ■

게일 와이 브랜볼트, 미국 캘리포니아

**애**니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자매님의 머리맡에서 물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나는 가방에 있는 것을 모두 꺼냈는데, 가방 맨 아래에는 내 탑승권과 함께 Ensign이 들어 있었다.



## 물몬경을 한 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랜 친구를 방문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들어섰을 때, 이번 여행에서 복음을 나누지 못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물몬경을 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가방에 항상 물몬경을 넣고 다니지만 물몬경이 가방에 그대로 남아 있을 때가 많았다. 이번 여행에서도 그런 기회는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사과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형편없는 회원 선교사같이 느껴졌다.

보안대를 통해 지나갈 때, 앞에 있는 여성에게 말을 하라는 영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우리는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각각 헤어져 다른 줄에서 있었다. 그리고 입구를 향하고 있을 때 그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아, 다시 만났네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그녀의 비행기가 언제 출발하는지 물었다. “아, 몇 시간 남았어요. 제가 일찍 왔거든요.”

“그래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내가

말했다.

내 비행기에 오르려면 아직 45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구에 앉아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후기 성도를 위해 하는 몇 가지 저술 활동을 언급하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에 화색을 띄며 이렇게 말했다.

“물몬이세요? 물몬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물몬경을 한 권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방을 열고 “아,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머!” 하며 그녀는 놀라워했다. “우리가 오늘 만나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내 마음은 기쁨으로 차고 넘쳤다. 그녀가 후기 성도 교회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물었을 때 영이 내가 해야 할 말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에게 선교사들이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마치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나는 가방을 열어 탑승권을 꺼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가방에 있는 것을 모두 꺼냈다. 가방 맨 아래에 연차 대회 특집호인 Ensign과 함께 탑승권이 있었다. 나는 Ensign을 그녀에게 주었고, 탑승권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에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녀는 대체로 읽을 거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마 이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탑승권을 손에 쥔 채 그녀와 포옹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우리는 매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녀는 자매 선교사들이 방문해 준 일을 나에게 말해 준다. 그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지났다. 나는 언젠가 그녀가 침례를 받는 것을 보길 바란다.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에 지금도 놀라움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몬경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

조니 힐튼, 미국 캘리포니아

# 인내: 기다림 이상의 의미

힐러리 올슨

“**올**슨 자매님, 자매님이  
인내하도록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치유받기에  
충분한 신앙을 갖기 위해 온종일 기도하고  
있었다. 축복의 말씀에는 내가 결국은  
차도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도 함께 있었다.

장로들이 내게 축복을 마치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선교 사업이 이제 고작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고 싶지는 않았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날이 걸렸다. 당장 차도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나는 여전히 참담한 상태로 있어야 했다.  
어느 날 경전을 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경전을 읽어 나가다가 야고보서

인내는 배우기 쉬운  
교훈은 아니지만,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1장에서 내게 필요한 평안을 찾게 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5절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 내 경우에는 2~4절에 그 답이 있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조셉 스미스 역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고난”으로 되어 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감자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 처지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덜 느끼게 도와주는 어떤 것을 배웠다.

내가 즉시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게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님께서 내 처지에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었다. 실제로는 도리어 그 반대였다. 주님은 나를 당장 치유하지 않고 내 신앙을 시험해서 인내심을 키울 수 있게 할 만큼 내게 마음을 쓰고 계셨다.

인내심이 아주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인내심을 키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내는 우리를 정화시킨다. 인내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돕는다. 나는 전임 선교사라는 중요한 책임이 있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한 그분은 당장 해야 할 일만큼이나 그 도구인 사람에게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 사업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더 훌륭하고 더 효과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주님은 내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셨다.

치유에 대해 내게 약속된 축복이 결국은 이뤄졌지만 인내에 대한 내 배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결혼과 취업, 자녀, 신체 및 정신 건강, 기도에 대한 응답 등 우리 인생에서 받는 많은 축복은 우리가 예상했던 때에 곧바로 오지는 않는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경험할 때, 다들 그런 경험을 해 보았고, 또 할 테지만, 주님과 그분이 택하는 시기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 인내에 대한 관점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의 목록에서 인내심 항목을 지워도 된다는 잘못된 느낌을 지닌 채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는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인내라는 것은 단번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인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귀던 사람과 헤어져 낙담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희망도 없었던 그 시기에 내게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미친 것은 인내를 되새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인내에 대한 맥스웰 장로님의 통찰이 내 관점을 (다시 한 번) 완전히 바꿔놓는 어떤 강렬한 개념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다시 인내에

몰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인내는 단념하는 것이 아님

예를 들어, 나는 인내에 몰두하는 것이 어깨를 으쓱하며 희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배웠다.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인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주님께 그리고 경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고 하는 것에 흔쾌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sup> 나는 인내라는 것이 인생의 경험에 대해 다소 수동적인 대응, 즉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내는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는 내적인 힘과 주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다.

### 인내는 걱정이 아니라 확신임

맥스웰 장로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인내는 우리 처지 때문에 마음이 오락가락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꺼이 경탄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너무 걱정이 많은 나머지 오븐을 여는 바람에 케이크가 부푸는 대신 꺼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지 보려고 이기적으로 우리 체온을 늘 재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sup>2</sup> 이런 생각이 참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내가 인내심 없이 빵을 굽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계획이 실패하거나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한다. 이 필멸의 육신에 담긴 마음으로는 신성하게 이뤄지는 시기 선정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충실하다면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이 택하는 시기를 근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 우리가 항상 중심은 아님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내로 시험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인내는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경험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의 일부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종종 있다는 점을 깨닫게 도와줍니다.”<sup>3</sup> 우리도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인내 또는 우리가 인내하는 모범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이를 통해 나는 인내를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하는”(모로나아서 7:46)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고귀한 특성으로 여기게 되었다.

### 기다림 이상의 의미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더라도 기다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인내가 그저 기다림 이상의 것임을 배웠다. 오빠인 앤드류와 올케인 브리아나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그런 교훈을 배웠다. 두 사람이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입양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지만 그것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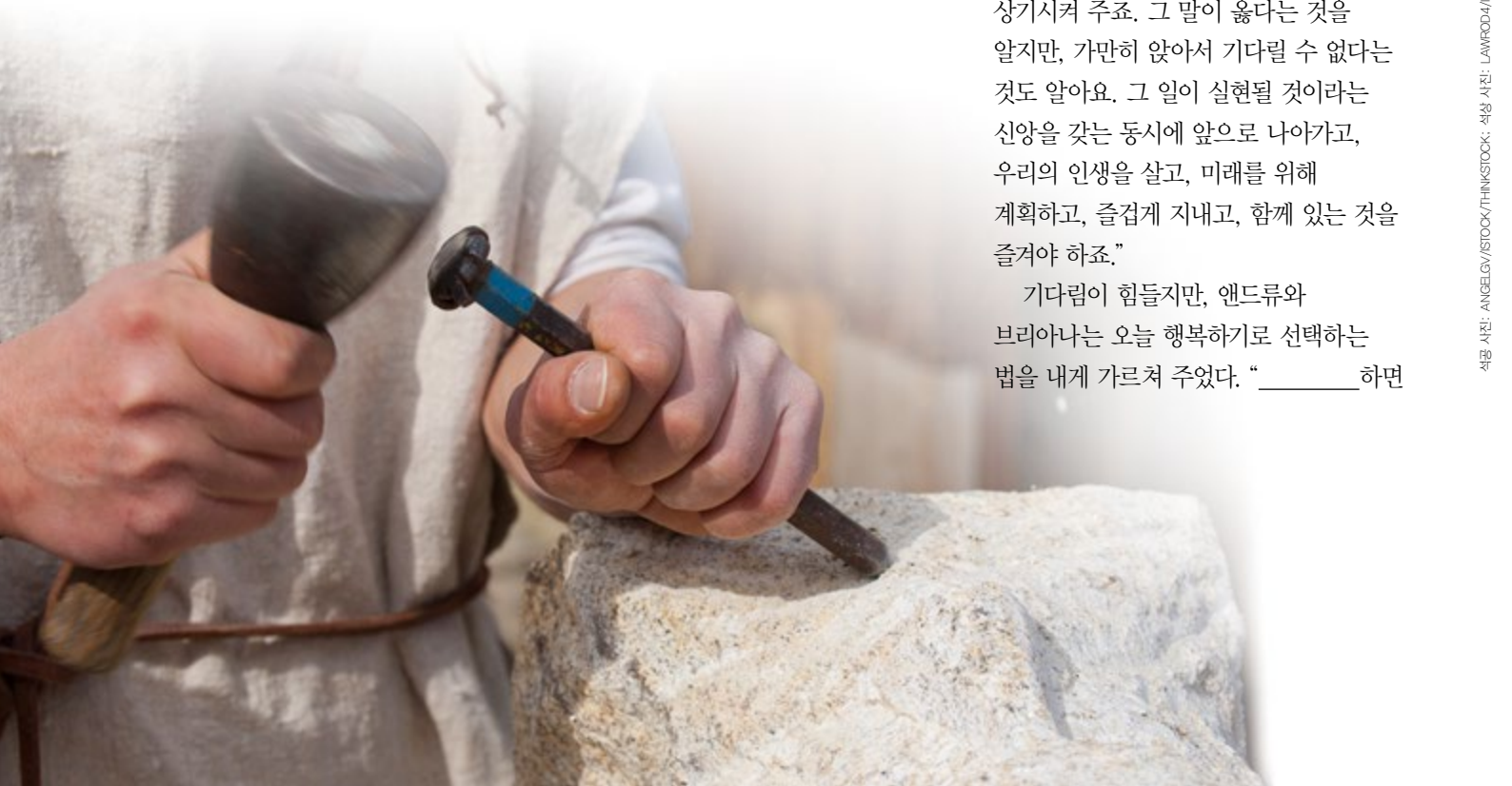
나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종종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오빠 부부를 언급할 때 기다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인다. 두 사람에게 기다림은 한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인내는 그런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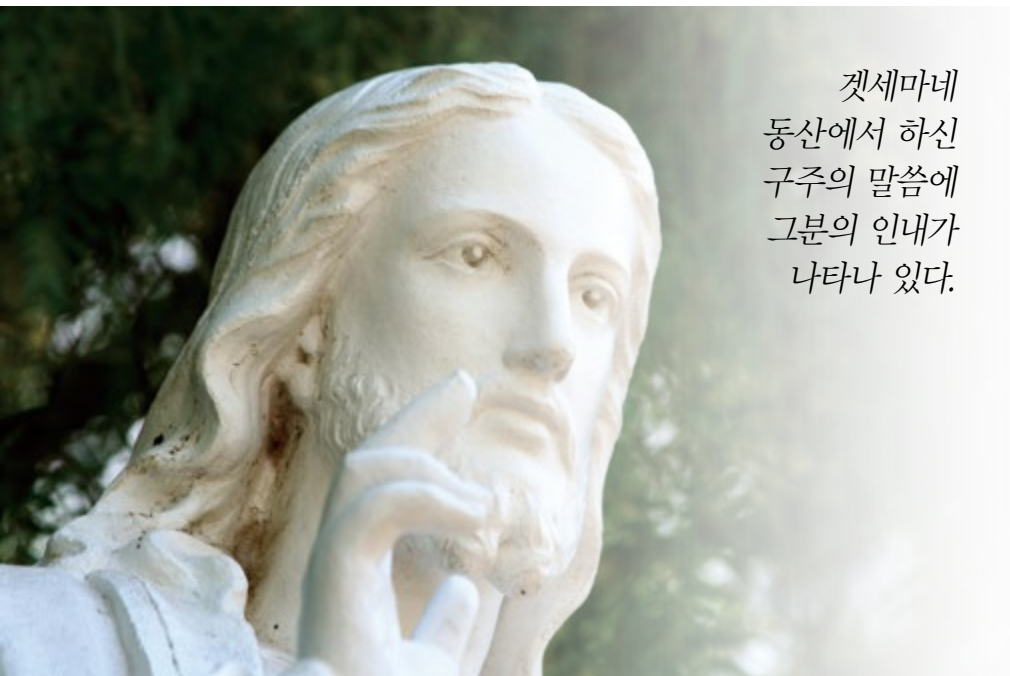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다. “입양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우리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우리 가족의 목표를 향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 블로그를 통하든, 친구 및 가족과 연락처 정보를 나누든, 그 지역 양부모 그룹과 관련을 맺는 것이든 두 사람은 “[그들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교리와 성약 123:17) 행하려 노력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겼다.

몇 년을 기다리고 기도한 끝에 두 사람은 제시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자 아기를 입양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그 아기를 품고 있을 때, 실망과 낙담으로 가득했던 몇 년 간의 고생은 멀리 사라졌다. 두 사람에게 그 아기는 기적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이 제시카를 입양한 지 이제 오 년이 지났으며, 지난 사 년 동안 두 사람은 또 한 명을 입양하려 노력해 왔다. 기다림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다. 브리아나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올 적절한 때가 되면, 입양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종종 상기시켜 주죠.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 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신앙을 갖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즐겁게 지내고, 함께 있는 것을 즐겨야 하죠.”

기다림이 힘들지만, 앤드류와 브리아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_\_\_\_\_하면





겻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구주의 말씀에  
그분의 인내가  
나타나 있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의 행복을 미룬다면 인생이 선사하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소망을 제쳐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할 때도 때때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 또한 제쳐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분의 사랑은 힘을 주고, 빈 곳을 채워 주고,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

#### 인내에 대한 구주의 모범

구주께서는 인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시다. 내 생각에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내가 나타나 있는 것 같다. 감히 상상도 못할 고난과 희생 속에서 그분은 가능하다면 고난의 잔이 그분에게서 거두어지기를 간구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러나나라는 말에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그 순간에 구주께서 실제로 무엇을 원하셨던 간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견디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표현하셨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하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의로운 소망조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에 대해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다. 또 그분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필멸의 세상에 따르는 예기된 난관과 예기치 않은 난관에 직면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내하신다.

인내에 대한 나의 관점은 내가 성인기로 들어서면서 확연하게 바뀌었다. 인내는 하나의 과정이며, 나는 늘 배우게 될 것이다. 비록 기다림이 분명 힘들지만, 내 인내가 시험받을 때 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화로운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이곳 지상에서 언젠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야고보서 1:4) 하려는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주

1. Neal A. Maxwell, “Patienc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27, 1979), 1, speeches.byu.edu.
2. Neal A. Maxwell, “Patience,” 2.
3. Neal A. Maxwell, “Patience,” 3.
4. “잠잠하라 내 영아”, 찬송가, 92장.



#### 인내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필요한 도움을 간청한다면, 또

도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또는 이제껏 바라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내와 온화함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President Henry B. Eyring, First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Waiting upon the Lor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30, 1990), 4, speeches.byu.edu.



# 선교 사업인가, 돈인가?

젤시 펠리스 노구에이라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 후에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전적으로 반대했다. 가족들은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대신에 석사 학위를 따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최근에 학사 학위를 마친 상태였으며, 학사를 마친 후 석사 학위를 따는 것은 내가 항상 꿈꾸던 일이었다. 내가 좋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 또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셨다.

선교 사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큰 형은 직장을 잃었고 곧이어 아버지가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부양하느라 마침내는 정부 보조금까지 모두 바닥나게 되었다.

**성전에 가서  
인봉받기 위해  
준비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축복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아버지가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몰라 울고 계신 것을 보았다.

당시 나는 최저 임금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대학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장학금을 받으면 나는 항상 십일조를 먼저 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신 후에 장학금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집에서 그 돈이 필요하니

교회에는 바치지 말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십일조와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나는 십일조를 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계속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의 대학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했고,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아버지가 직장에서 버셨던 것과 거의 같은 금액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그 돈이면 아버지가 은퇴를 하실 때까지 가족을 돌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가족들은 내가 그 직책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나는 수없이 기도를 드렸고, 주님은 내가 선교사 임지로 떠나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다. 나는 그분을 신뢰했고 브라질 산타마리아 선교부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주님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내 가족을 축복해 주셨다. 나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말라기 3:10 참조) 아버지와 형이 다시 직장을 찾았고, 가족은 젖소를 키워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내 간증은 커졌으며, 내가 봉사한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을 보는 것은 내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다. 성전에 가서 인봉받기 위해 준비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축복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

글쓴이는 브라질 세아라에 산다.



### 십일조: 우리 신앙의 시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일조의 영원한 축복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제 가족의 생활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험은 순종과 희생으로 십일조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을 빌리면,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앙을 만들기에 충분한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Joseph Smith, *Lectures on Faith* [1985], 69)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9쪽.

의와 진리로 가득 찬 메시지로 세상을 덮으십시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를 덮으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경륜의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신권 권세, 의식 및 교리적 지식이 지상에 존재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경륜의 시대가 확립되려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종, 즉 성스러운 신권 권세와 열쇠를 지니고 행사할 경륜의 시대의 수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 경륜의 시대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복음 진리가 새로 계시되거나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하여 이전 경륜의 시대에 알려진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은 않습니다.

진리로부터의 배도는 이전 경륜의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 시대에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던 구원 사업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후기의 영광이 전개되는 시대, 바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특별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취되어 우리가 사는 이 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습니다.”<sup>1</sup>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는 “여러 경륜의 시대의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이고도 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온 것들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 드러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8:18)

### 때가 찬 경륜의 시대와 과학 기술

우리는 이 놀랍기 그지없는 경륜의 시대에 살며, 배우고, 봉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기술 혁신과 발명품의 기적적인 발전으로서 이는 구원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가속화했습니다. 기차부터 전보, 라디오, 자동차, 비행기, 전화, 트랜지스터, 텔레비전, 컴퓨터, 위성 전송,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축복이 되는 과학 기술 및 도구를 나열하자면 거의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후기에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일환입니다.

1862년,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식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참으로 충실하고 유익한 과학과 예술에서의 모든 발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탄의 힘으로부터 지구를 구원하고, 진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길을 준비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sup>2</sup>

이제 1974년에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이



선교 사업의 장래에 대해 설명하며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발명품들을 우리에게 몹시 주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

주님께서 주신 이 통신의 기적과 더불어,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주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파송된’ 다른 모든 이들의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이 신성한 계명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저 진실로 그 소리는 이곳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니 - 복음은 ...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64)”<sup>3</sup>

1981년,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교회 회원들이 어디에서든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분께서 택하신 선지자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주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sup>4</sup>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려면 며칠, 몇 주, 몇 달까지 소요되던 것이 이제는 몇 초 만에 전 세계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해 우리를 가르치고 준비시켜 온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계속되는 선교 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십니다.<sup>5</sup>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강력한 통신 기술의 혁신과 발명품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은 수많은 개인 및 가족에게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세계적인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과 아울러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후기에 회복된 복음이 실재함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이러한 영감 받은 도구들을 적절히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1. 진실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제작물은 거짓이며, 가짜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참되고, 솔직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장하거나, 또는 꾸미거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그 무엇인 척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으며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익명성은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일관성을 통해 강화됩니다. 여러분의 게시물이 이어지는 방식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이 분명히 드러날 때 여러분이 나누는 복음 메시지는 더욱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님은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일관성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커다란 귀감이 되십니다. 2013년 4월 본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자매님의 핀터레스트(Pinterest) 팔로어 수는 밤 사이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오스카슨 자매님이 전에 게시했던 핀에는 그분의 고결성이 잘 드러나는데, 이를 보고 한 블로거는 이러한 질문을 게시했습니다. “당신의 핀터레스트 페이지는 보니 오스카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당신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sup>6</sup>

## 2. 영감을 주며 교화하십시오

둘째,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투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고 교화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품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데 용감하고 담대하되, 지나쳐서 위압적이지 말고, 분쟁을 피하십시오. 점점 더 사악하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우리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빛과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강력한 통신 기술의  
혁신과 발명품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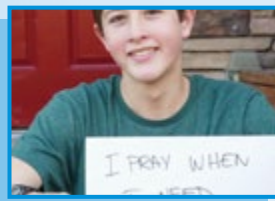
## 소셜 미디어 활용의 보기

**다**음은 교회 및 회원들이 제작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한 복음 메시지와 이미지의 몇 가지 예이다.



1. **그분 덕분에.** 교회에서 제작한 짧은 비디오로,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찬미하는 내용이다. 지난 해 부활절 주간에 191개 국가와 지역에서 5백만 번 이상의 시청 수를 기록했다. #그분덕분에 해시태그(관련된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를

사용하여 회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소셜 채널과 장소에서 구주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수많은 생각과 이미지를 나누며 소통했다. 이 동영상은 [lds.org/media-library/video/topics/easter](https://www.lds.org/media-library/video/topics/easter)에서 볼 수 있다.



2.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교회 회원들과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소셜 채널에 “나는 ... 할 때 기도한다”는 표현 끝에 표시를 붙여 자신들에 대한 300장 이상의 사진을 올렸다. 이번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DidYouThinktoPray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 어떤 이유로 교통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간단한 일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4만 개가 넘는 대화를 이끌어 냈다. 이것은 [mormonchannel.org/watch/collection/mormon-channel-videos/i-pray-when-did-youthink-to-pray](https://www.mormonchannel.org/watch/collection/mormon-channel-videos/i-pray-when-did-youthink-to-pray)에서 볼 수 있다.



3. **Book of Mormon 365**(몰몬경 365)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한 부부는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매일 몰몬경 읽기 과제를 게시한다. 이 과제는 365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팔로어들이 1년 안에 몰몬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완벽한 분량이 된다.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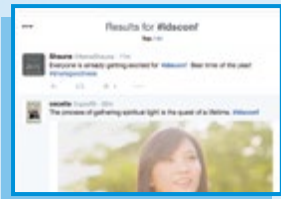
4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이들이 몰몬경을 함께 읽어 나가며 생각과 느낌을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





4. **총관리 직원 소셜 미디어 계정** 지난 해 여름에 교회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사진을 게재할지 선택한다. 일부 총관리 직원들은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다. 모든 총관리 직원은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나눈다. [lds.org/media-library/social](https://lds.org/media-library/social)에서 그들의 페이지를 찾아 본다.



5. **#LDSconf** 연차 대회 방송 중에 화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 부분에 나타나는 #LDSconf 해시태그는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기 오래 전인 2008년 10월에 대회 관련 트윗트를 팔로잉 하고 공유할 기회를 찾던 한 충실한 회원이 만든

것이다. 수천 명의 회원들이 #LDSconf 해시태그에 참여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권고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그것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차 대회 메시지로 힘을 얻고 있다.



6. **물론을 만나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회에서 제작한 장편 영화 분량의 영상이다. 이 영화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통상적인 오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다룬다. 이 영화는 DVD, 방문자 센터, 인터넷 영화 채널, 소셜 미디어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eetthemormons.com](http://meetthemormons.com)에서 찾아본다. 이 다큐멘터리는 회원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의와 진리로 가득 찬  
메시지, 참되고, 교훈적이며,  
칭찬할 만한 메시지로  
이 지상을 덮으십시오.



### 3. 지적 재산을 존중하십시오

셋째,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의 작품, 이름, 사진, 음악, 동영상 또는 기타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LDS.org의 미디어 자료실에 있는 콘텐츠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입니다. 교회 미디어 사용에 관한 더 많은 사항은 social.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나눌 때, 여러분이 표현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회 로고를 사용하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대변 또는 대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4. 현명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십시오

넷째,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십시오. 인터넷에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대화는 영원히 저장됩니다. 그 앱이나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지라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보기를 원하는 메시지나 사진만 게시하고 남기십시오.

이 간단한 지침을 따른다면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빛을 “어두운 데서 비취[게]”(몰몬서 8:16) 할 복음 메시지를 만들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사도의 권유

이 경륜의 시대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은 좋은 출발을 보이긴 했지만 이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물방울이 홍수가 되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의와 진리로 가득 찬 메시지로 이 지상을 휩쓸십시오. 참되고, 교화적이며, 칭찬할 만한 메시지가 문자 그대로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십시오.(모세서 7:59~62 참조)

저는 우리가 단지 급작스럽게 몰려왔다가 그와 같이 순식간에 약해지는 돌발적인 홍수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재빨리

끝내고 자신이 해야 할 긴 복음 과제 목록에 있는 다음 일로 넘어가는 요란한 일회성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 전문가나 소셜 미디어광이 될 필요도 없고 메시지를 공들여 만들고 전파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속한 수많은 회원들이 사소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수위가 높아지도록 일조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소하고 개별적인 우리의 노력이 모여 의와 진리의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하여 차차 수많은 개울과 강이 되고 마침내 땅을 휩쓰는 홍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우리는 아주 많은 면에서 축복을 받았으며,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축복임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과학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을 모두 명확히 인지할 안목이 생기고, 이 영감 받은 도구들을 적절히 사용할 능력을 키우기를 기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홍수로 땅을 휩쓸게 하는 일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업을 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 필멸의 기간에 영생을 준비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필수적인 방법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

브리검 영 대학교 캠퍼스 교육 주간 중인 2014년 8월 19일에 전한 말씀에서 발췌함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86쪽.
2.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18-19.
3. Spencer W. Kimball, “When the World Will Be Converted,” *Ensign*, Oct. 1974, 10-11.
4. 고든 비 헝클러, “신앙: 종교의 정수, 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4쪽.
5.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6. “Would Your Pinterest Page Pass the Bonnie Oscarson Test?” latterdaysaintwoman.com.

“제 부모님은 성전에서 결혼하셨지만 지금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가정을 깨뜨려서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혼은 가족 모두에게 슬프고 힘든 사건입니다. 보통으로 이혼에는 분노와 상실감, 상처가 따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평안을 느끼고 치유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감정을 없애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35절에 있는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참조) 부모님은 여러분의 용서에 관한 이타적인 은사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이 분노와 비난을 버리면, 온 가족이 더 힘을 얻고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자긍심과 행복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68쪽)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가족 관계,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에 여러분은 그런 관계에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런 관계에 의지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이런 중요한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신앙을 지니십시오. “이 모든 일이 ... 네 유익이 될”(교리와 성약 122:7)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하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멋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생과 영원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용서는 하나의 과정이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안내하십시오. 용서할 때 오는 평안과 행복을 고대하십시오.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을 때, 저와 친형제자매들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의 눈이 열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제 마음이 치유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저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사슬에서 풀려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가 실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위로 받지 못하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익명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용서하세요**

저도 같은 상황을 겪어 봤는데,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부모님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계속 생활한다면, 비록 이곳 지상에서 가족이 약간 붕괴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애설리 더블유, 17세, 미국 텍사스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즐거운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그런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개별적으로 할 활동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시에라 제이, 15세, 미국 아이다호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생에서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때때로 있지만 우리 자신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늘 부모님의 장점을 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카틴 장로, 20세,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선교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이혼을 감당하고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지도자들, 친형제자매, 가족들이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나 시, 18세, 미국 뉴멕시코



**반감을 버리십시오**

반감은 해로운 것이며 교회의 가르침에 배치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금식하고, 경전을 읽으며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반감을 계속 간직한다면, 사탄이 들어와 여러분의 가족을 파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캐롤 엠, 14세, 온두라스

**성신을 구하십시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눈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고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택해 그분들께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거 일에 대해 부모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런 시련을 겪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용서가 지유합니다**

“수많은 가족에게서 상한 감정과, 용서를 꺼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쟁점이 무엇인가는 사실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도록 남겨질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비난은 계속해서 상처를 드러냅니다. 오직 용서만이 지유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숨겨진 썩기”, 리어오니, 2002년 7월호, 20쪽.

노력하십시오. 개인 경전 읽기를 하고 매일 기도 드리십시오.

애슐리 피, 15세, 미국 유타

**다음 질문**

“저를 빼고는 교회에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5년 9월 1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공과**  
 이 달의 주제:  
**결혼과 가족**

## 행복한 가족이 되는

# 비결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 아홉 가지 방법!

**민디 앤 레빗**  
 교회 잡지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족에 대한 교리는 그 중요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청년들은 “가정과 가족을 강화”<sup>1</sup>하겠다는 결심을 정기적으로 암송하며, 청년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적도록”<sup>2</sup> 권유받는다. 청년 청년들이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축복을 받을 것”<sup>3</sup>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그렇다면 가족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있다! 이 중요한 자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왜 가족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선언문은 또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것은 어떤 숨은 비결이 아니라 우리가 늘 배워 온 기본적인 원리들이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sup>4</sup>

바로 여기에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가족 관계를 향상시킬 간단한 비결이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가족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 신앙

- 가족 및 개인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에 참여한다.
- 가족과 함께 금식의 법이나 십일조의 법과 같은 계명을 더 잘 지킬 목표를 세운다.
- 가족이 함께 다가오는 연차 대회를 듣거나 이전 연차 대회를 공부할 계획을 세운다.

### 기도

- 가족 기도에 참여한다.
- 개인 기도를 할 때 가족 개개인을 위해 이름을 대며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생각한다.

### 회개

-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또 진심으로 말한다.
- 함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찬의 중요성과 이 두 요소가 회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 용서

-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심지어 부모도 실수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사랑하는지 기억한다.
-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한다.

### 청소년들의 경험

이런 원리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몇몇 청소년에게 물어보았다.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들려주었다.

#### 신앙

**저**는 신앙에 초점을 둔 가정의 밤을 두 차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과를 준비하고 우리가 부를 노래의 기타 코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과는 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 가족이 함께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지를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기도, 경전 연구, 금식, 교회 가기”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신앙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공과에서는 영적인 은사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영적인 은사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을 주제로 한 가정의 밤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가족 내의 여러 가치를 개선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대충 끝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영을 느꼈습니다.

리자 에스, 15세, 덴마크, 로스킬드

#### 기도

**저**는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신앙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기도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깨닫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집에서 더 큰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제 신앙에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다쳐서 긴급 수술을 해야 했고, 친구도 심하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으며, 어머니는 고열과 함께 인후염을 앓으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은 제게서 평화를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슬펐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 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기에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신앙을 행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동생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의견상 보였던 것만큼 상처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전보다 더 집중하고 더 큰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롬 케이, 18세, 오스트리아 그라츠

## 회개

**저**는 회개가 모든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저는 몇 달간 죄를 범하고도 그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독님과 제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후에 회개 과정을 밟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짐을 느꼈고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경전을 읽으면서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일부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경험으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이 경험을 통해 특히 엄마 아빠와 아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주님의

속죄를 통해 회개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언제나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주신 속죄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빌리 피, 17세, 영국 입스위치

## 일

**저**는 가족 역사를 일종의 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저만의 가족 역사책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사진을 모두 모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제 아이들과 손자손녀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글로리 에스, 18세,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정에서 일의 원리를 적용한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했다. 그들이 만든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서 이 기사를 찾아본다.

## 건강한 오락 활동

**형**제자매들과 함께 오락 활동을 하려는 첫 시도는 한 마디로 말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루 리지 산으로 간 여행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잎들은 형형색색 아름다웠고 놀이공원은 즐거웠지만, 통명스러운 말들과 이기적인 행동, 잘못 흘러간 장난 등으로 분위기가 자주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는 여동생과 함께





## 존경

- 부모님께 순종한다.
- 가족 중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거나 불친절하게 말하지 않도록 한다.
- 가족 개개인에게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찾아 본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우러러보는지 이야기해 준다.

## 사랑

-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사랑을 베풀도록 기도한다.
- 가족에게 봉사할 방법들을 찾는다.
- 사랑과 격려의 짧은 편지를 쓴다. 가족이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도시락 통이나 지갑 등에 쪽지를 감춰 둔다.

## 동정심

- 가족이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 노력한다.(모사이사야 18:8~9 참조)

## 일

- 가족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 잔디 깎기, 정원 잡초 제거, 또는 창문 닦기 등 집 안팎의 일을 돕는다.
- 동생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 건강한 오락 활동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야유회나 휴가, 활동 등을 함께 계획한다.
- 디지털 기기 없이 지내 본다.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TV와 다른 전자 기기를 꺼 둔다.

작은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가 조용히 앉아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다투지 않고 함께 앉아서 현재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영이 함께했고 제가 잊고 있던 평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동생들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기 시작했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묻고 안아 주며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폐아인 막내의 숙제를 도와주었는데, 함께 문법 플래시 카드를 만들고 연설문의 여러 부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스꽝스러운 운을 붙여 주기도 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다음 시험에서 20점 이상이 올라 역대 가장 좋은 시험 성적을 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깊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재미와 놀이, 웃음이 되며, 우리 가족이 새롭게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에밀리 시, 17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주

1. "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1년), 3쪽.
2. 하나님에 대한 의무(소책자 2010년), 80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4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 안식일은 즐거운 날

일요일을 좀 더 뜻깊게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우**리를 둘러싼 유혹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큰 중요성을 띠는데,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동유럽의 젊은이들은 안식일로 어떻게 자신들이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눈다.

##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안식일은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요일마다 저는 교회 회원들 옆에 앉아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저에게 안식일은 배움과 행복, 그리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을 배우면서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저는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지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이 지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비스 비, 18세, 라트비아

## 성찬을 취하고

매일 저는 교회에 가서 성찬을 취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저는 안식일 복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날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때론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교회에 가서 성찬을 취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공부할 때 성신을 느끼며 영이 고양됩니다.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구주께서 몸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나 디, 14세, 라트비아

## 사람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며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한 주를 위한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교사의 경험을 통해 경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경전을 함께 공부할 때, 경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안토니나 비, 18세, 러시아 중앙연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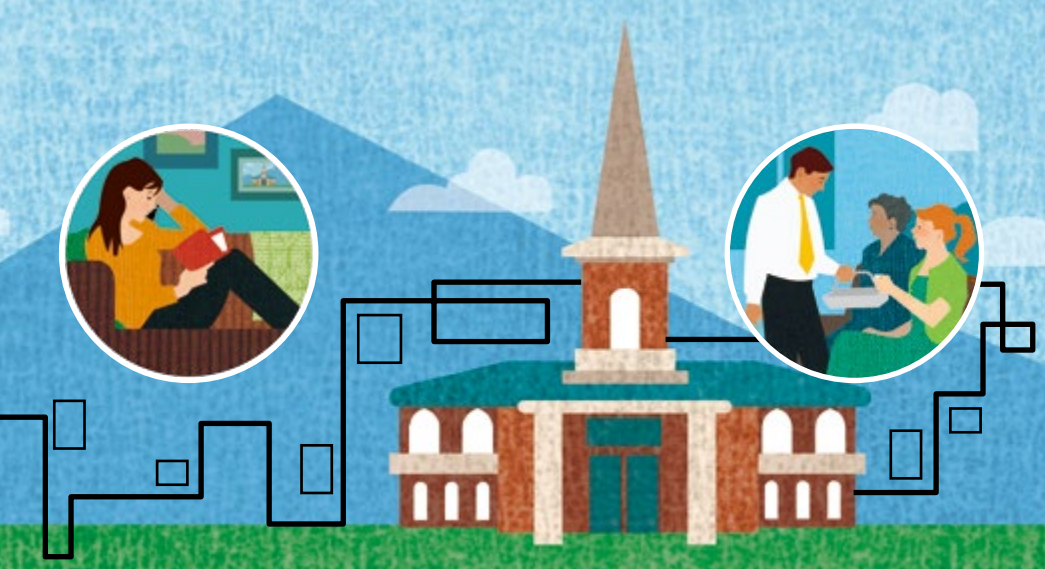
##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59:9~10





**안식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은 오락이나 일상의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쉬며 신적 영적 안식을 찾으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도 장원회,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러야나*, 2015년 5월호, 129쪽.

**영을 동반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마태복음 26:38 참조) 제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성찬을 취할 수 있는 날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제가 일요일에 모든 세상적인 근심에서 벗어나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올바른 일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일,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일, 고양시켜 주는 영화를 보는 일, 친구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제 마음을 좀 더 예수님께 돌릴 때 저는 그분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축복도 이보다 더 훌륭하진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로브나 시 자매, 25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선교부

**영으로 고양됩니다**

저에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잘 준비하여 성찬에 참여하길 소망하며 교회에 와서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한 주 내내 축복을 받고 영으로 고양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선교사 돕기, 와드에서 봉사하기 그리고 교회 서적 읽기 등이 그 예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기회에 감사드릴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장로, 18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선교부

---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13~14



# 신앙으로 기다리며

나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도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 미카엘리 두아르테 다 실바

나는 우리 집 가까이에서 사는 고모와 삼촌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일곱 살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아 즐겁게 교회에 다녔다. 부모님은 회원이 아니셨지만, 내가 일요일마다 고모와 삼촌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을 꽤 좋아하셨다. 부모님은 내가 길거리에 쓰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셨다.

선교사들은 자주 우리 집으로 와서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 부모님은 토론을 좋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침례의 물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한 약속을 맺는 것이며, 자신들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다.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우리 집에 왔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대답을 듣고 언제나 낙담해서 떠났다. 그렇지만 나는 부모님이 언젠가는 침례를 받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여덟 살이 되었고 침례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 엄마는 내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다. 엄마는 내게 침례를 받고 나면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침례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초등학교에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침례 받기를 꿈꿔 왔다고 말씀드렸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 교회에 계속 나갔지만 부모님은 초등학교 활동에 거의 오지 않으셨다. 나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게 힘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부모님이 언젠가는 침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될 것이며, 내 가장 큰 꿈이 실현될 것이라 희망했다.

내가 십 대가 되었을 때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부모님을 가르쳤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침례를 원치 않으셨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따금 교회에 나오셨고, 나는 약간의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꿈꿨지만, 이 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내가 열일곱 살이던 해의 어느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에 어머니가 다시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셨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생생히 떠오르는 말씀을 내게 해 주셨다.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이었다.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탓에 나는 이 일이 꿈인가 생인가 싶었다. 2010년 5월에 어머니는 침례의 물로 들어가셨다.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나는 침례 후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제 남은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요.” 하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곧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다. 다시 마음이 슬퍼졌다. 내 꿈의 일부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나머지 한 부분은 너무도 멀리 있는 듯했다. 힘든 상황이었으나 나는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다. 내 기도는 두 달 후에 다시 이뤄졌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아버지가 침례의 물에 들어가신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나는 마치 하늘이 노래하는 것만 같았다.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 온 후에 내 꿈의 또 다른 부분이 이뤄졌지만, 나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을 위해 인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준비가 덜 되었고 브라질 레시페 성전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간 사이에 집을 지켜 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슬펐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에 그 축복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이윽고 아버지는 계속 미루시는 데도 어머니가 성전에 가야 한다는 강한 소망을 느끼기 시작하셨다.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부모님은 모두 성전에 가기로 결심하셨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다!

2011년 9월에 엄마와 아빠와 나는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 갔다. 나는 이튿날 부모님께 인봉되었다. 나는 11년간의 기다림 끝에 내 인생 최고의 날을 맞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특히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가장 큰 꿈, 곧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꿈을 이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글쓴이는 브라질 체아라에 산다.



# 셀리의 경주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이사야 41:10)

“안녕, 셀리!” 셀리는 낡은 운동화 끈을  
조이면서, 출발선에서 손을 흔드는 로자를  
올려다보았다. “자!” 로자가 소리를 질렀다. “오늘,  
기록을 깨 보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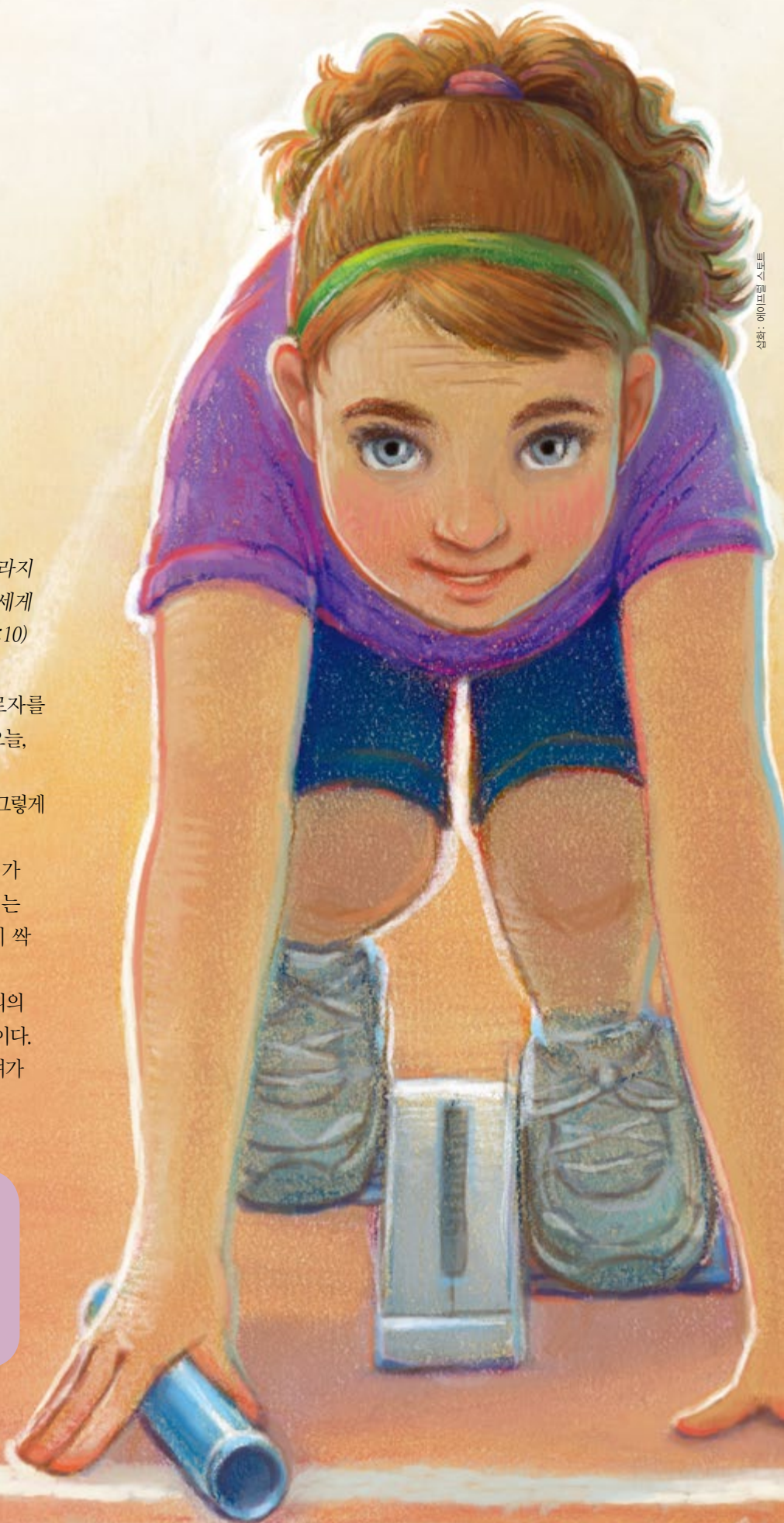
셀리는 싱긋 웃었다. 로자는 연습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셀리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육상부에 들어온 것이다. 셀리는  
달릴 때 몸 안에 빛이 느껴지면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이곳에선 아무도 셀리의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하신 일을 모른다는 것이다.

셀리는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매고는 달려가  
계주팀의 친구들과 합류했다. 아야! 운동화

이제는 셀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끝에 발가락이 꼭 끼여서 셀리는 몸을 움찔했다. 새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아빠에게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을까?

경주를 마친 후 셀리와 로자, 베카, 티아나는 계주 기록을 갱신한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오늘 기록을 깰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로자의 말에

셀리도 웃음을 터뜨렸다. 셀리는 바톤을 육상 선생님께 드리고 몸을 숙여 운동화 끈을 풀었다.

“모두들 잘 했다.” 골드만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 “너희 모두 다 잘했어.

내일 참가비 가져오는 거 잊지 마라.”

셀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셀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셀리의 머릿속에는 운동화와 참가비 생각뿐이었다.

셀리는 엄마에게 걱정거리를 하나 더

안겨 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지난 번에 전화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빠는 성가셔하시는 것 같았다. 이제는 셀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다.

셀리는 집에 도착하자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때 오빠와 언니들은 이야기하며 농담을 주고 받았지만 셀리는 말없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뒤적거리기만 했다.

식사 후에 엄마는 셀리가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저녁에 파커 감독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서 신권 축복을 받지 않을까?”

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셀리는 걱정이 되거나 아플 때 아빠가 주셨던 축복이 정말로 그리웠다.

잠시 후, 파커 감독님에게 축복을 받게 된 셀리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감독님은 축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셀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 계시지 않아서 그대를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하시느니라. 아빠에게 했듯이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항상 그대를 도우실 수 있도록 축복하노라.”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셀리는 감독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말해 주는 따뜻한 느낌을 느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게 해 주실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라가 임하시오며”,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21~122쪽.

아버지께서는 셀리를 사랑하시고 셀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었다. 감독님의 도움 덕분에 이제 셀리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셀리는 엄마에게 운동화와 참가비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에게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다음 날 아침, 셀리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 기도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쯤에 셀리는 아빠에게 전화를 드릴 만큼 용기가 생겼다. 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아빠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는 화를 내거나 성가셔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셀리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몇 주 후, 셀리는 새 운동화 끈을 조이고서 로자와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셀리는 자신을 든든히 받쳐 주는 훌륭한 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곤 기분이 좋아졌다. 셀리는 홀로 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



# 도와주세요!

## 누군가 이혼을 하려 해요

캐서린 벨슨

**부** 모님이 이혼할 때 어린이들은 두려움과 걱정, 죄책감, 분노, 혼란, 안도감 또는 슬픔을 느끼며, 때론 이 모든 것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제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가정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와드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 초등학교 선생님과 감독님,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론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혼에 대해 말할 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화가 나요.

어떤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쉽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화가 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도록 계속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엄마나 아빠, 또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분들은 운동이나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혼하겠다는 결정은 부모님 두 분이 하신 것입니다. 자녀는 이혼에 책임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워요.

큰 변화가 닥칠 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나는지 알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와 의문들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위안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의 속죄로, 모든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계속 옳은 것을 택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슬픈 마음이 들어요.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큰 변화에 슬퍼하는 것은 나중에 기분이 나아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때로는 슬픈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 보세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 보세요. 좋은 책을 읽어 보세요. 행복한 음악도 들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보세요. 친구와 재미있게 지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세요.

슬픈 감정이 아주 오래 가고,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 학교에서 집중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일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른에게 말씀드리고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이 제 잘못인가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함께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님의 이혼은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임을 믿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1922~2015), 심이사도 정원회,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41쪽.

###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느끼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나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며 위안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살피시며 절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평안과 행복을 느낄 힘을 주실 것입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이혼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애미 제인 레빗  
실화에 근거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어린이  
노래책, 83쪽)

“**신** 나는 쉬는 시간이야!” 교실  
뒤의 선반에 점심 도시락을  
갖다 놓으면서 엘리가 로렌에게  
말했다. “테미가 오늘 운동장에서 같이  
술래잡기를 하자고 조금 전에 그러던데.”  
“재미있겠다!” 로렌이 말했다. “난  
술래잡기가 좋아.”

로렌은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테미가  
엘리에게 함께 놀자고 해서 깜짝 놀랐다.  
테미는 항상 엘리에게 짓궂게 구는  
친구였다. 로렌은 테미가 이제부터라도  
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기뻐다.

“책을 먼저 도서실에 갖다 놓고  
올게. 나 없이 시작하면 안 돼, 알았지?”  
엘리는 복도를 따라 도서실로 뛰어가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다.

로렌은 운동장으로 쏙살같이 달려  
나갔다. 도착해 보니 테미가 이미 원으로  
다른 아이들을 모으고 있었다. 로렌은  
달려가서 함께 섞였다.

“다들 빨리 와!” 테미는 다른  
아이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기 주위로  
모이려고 외쳤다. “엘리가 오기 전에  
너희한테 말해 주고 싶은 재미난  
계획이 있어.”

그 모습을 보는데, 로렌은 좋지

# 자, 이제 네가 술래야!







**괴롭힘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조롱이나 괴롭힘[이] ...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적인 회오리바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0쪽.

않은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뭘지 들어 보려고  
비집고 모여들었다. “오늘은 방법을  
바꿔서 아무나 술래를 시키지 말고  
앨리만 술래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앨리에게 말하면 안 돼, 말하면 같이  
안 놀아!” 테미는 그렇게 말해 놓고  
킁킁거렸다. 테미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로렌은 원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유치원 때부터 앨리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앨리를 못살게  
굴었다. 앨리를 놀려 대고 괴롭혔다.  
대부분은 테미가 먼저 시작했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했다.

로렌은 아이들이 앨리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못마땅했다. 바로 그때,  
로렌은 의로운 결정을 하기로 했다. 즉,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로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로렌은 심호흡을 하고 테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별로 좋은 계획 같지는  
않은데, 앨리를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놀고 싶지 않아.”

로렌은 원 밖으로 걸어 나갔고, 앨리를  
찾기 위해 교실 쪽으로 혼자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로렌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때, “로렌, 기다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테미가 그린 원에  
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로렌을 따르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데이먼이 말했다. “가서 앨리를  
데려다가 우리끼리 술래잡기를 하자.”

“나도 할래!” 리아도 맞장구를 쳤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로렌은 흐뭇하게 웃었다. 뱃속에  
느껴졌던 불편함이 싹 사라졌다.

“좋은 생각이야!” 로렌이 말했다. “저기  
앨리가 오고 있어.”

로렌이 돌아서서 데이먼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로렌은 “자, 이제 네가 술래야!”  
하고 소리치면서 앨리에게 달려갔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뒤에서 함께  
달려갔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로렌과 앨리는 캐나다에 산다. 두 사람은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여전히 좋은 친구이다.

별로 재미있는 계획  
같지는 않았다.  
적어도 앨리에게는 말이다.



의를

위해

서라

우리의 선지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고 참된 자 되어라”

어둠이나 빛 가운데서나 진실하고 참된 자 되어라

의를 위해 서는 자 되라

(어린이 노래책, 81쪽)

의를 위해 설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좋은 책

좋은 친구

좋은 음악

좋은 비디오와 그 밖의 미디어

선행

정직

친절

단정함

존경





# 용감하게 의 행하라

(쉽게 편곡한 노래)

작곡: 조지 엘 테일러  
편곡: 에이 시 스미스

대담하게 ♩. = 44-54 (한 마디를 두 박자로 지휘한다.)

C F C D7 G7

용 감 하 게 의 행 하 라! 할 수 있 는 자 는 너 뿐 이 니

C F C G

친 절 히 홀 릭 히 수 행 하 라. 천 사 가 모 든 것

C G7 C G C F C

말 하 리 라. 용 감 용 감 하 게 의 를

G C F A7 Dm G7 C

수 행 하 고 용 감 하 게 진 실 하 라.

© 201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복사할 때마다 이 저작권 표시를 포함해야 함.

# 힘든 선택



아만다 미카엘리스

실화에 근거함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디에고는 터벅터벅 언덕을 걸어 올랐다. 보통,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은 쉬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엔 내내 끔찍하기만 했다! 디에고와는 아무도 같이 축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디에고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냥 운동장 둘레를 혼자서 걸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디에고는 그렇게 외치며 문을 열고 들어와 부엌에 앉았다.

“학교는 어땠니?” 엄마가 물으셨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디에고는 사과를 집어 들었다. “쉬는 시간에 어느 누구도 저랑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디에고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외롭다고 느끼면 힘이 들지.” 엄마는 디에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기도로 도움을 구해 보면 어땠겠니?”

디에고는 눈물을 훔쳤다. “고마워요, 엄마.” 디에고는 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디에고가 쉬는 시간에 같이 놀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로 염려하셨을까? 디에고는 무릎을 꿇고서, 친구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하고 나자 기분이

나쁜 비디오 게임 때문에 새 친구를 잃게 된다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이튿날,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디에고는 문을 열어 주기 위해 달려 나갔다. 문 밖에는 이웃으로 새로 이사온 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디에고가 오늘 운동장에서 보았던 아이였다.

“안녕, 나는 루벤이야.” 그 아이가 말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래?”

디에고는 얼굴이 싱글벙글해졌다. 같이 놀 친구? 디에고의 기도는 응답된 것이다!

둘은 루벤의 집으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루벤의 형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디에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 게임은 역겨운 사진들이 많이 나왔고 굉장히 난폭했다. 그러나 루벤과 루벤의 형은 그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저거 잡아!” 같이 보고 있던 루벤이 소리쳤다.

디에고는 속이 울렁거렸다. 디에고는 발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다. 디에고는 그런 비디오 게임은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디에고는 새 친구에게 이런 신나는



비디오 게임을 같이 못하는 재미없는 아이로 비쳐지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서 한마디 하면 루벤이 이상하게 여길까?

디에고는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 생각했다.

디에고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아, 그런데 … 어디 또 구경시켜 줄 데 없어? 아니면 우리 2층에 올라가서 놀까?”

잠시, 루벤이 디에고를 쳐다보았다. 디에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만 놀자고 하려는 것일까?

루벤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잠깐, 너 자동차 좋아해? 나한테 무지하게 빠른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경주 할래?”

디에고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디에고는 루벤을 쫓아 위층으로 올라갔다. 디에고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마치 두둥실 몸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디에고는 새 친구를 사귀어서, 또 나쁜 것을 보지 않게 되어 기뻐했다.

“빨간 차는 내 거야. 하지만 파란색이나 초록색은 네가 가지고 놀아도 돼.” 루벤이 말했다. “어떤 걸로 할래?”

디에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초록색 자동차를 골랐다.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용기 있는 선택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은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칠십인 정원회 더블유 크레이그 즈워크 장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98쪽.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 자유롭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약물 및 술과 같은 것에 중독되면 좋은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운동, 텔레비전 시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자유 시간 모두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얼마간의 자유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애가: 속박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88~91쪽에서 발췌함



# 우리는 회개하고

## 용서할 수 있어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옳은 것을 선택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한 일을 생각해 봅니다.
-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법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생각해 봅니다.
- 힘들 때는 용서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합니다.
-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계속 간직하지 않습니다.



# 클라라와 초등회 프로그램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클**라라네 가족은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클**라라는 일요일에 일어나 다 함께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일요일, 초등회 회장님은 이제 초등회  
프로그램을 곧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클라라는 사실 초등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선생님께서 클라라에게 “초등회 프로그램에서 경전  
구절 한 개를 읽고 간증을 전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어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이 났어요!  
클라라는 복음에 대해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클라라는 매일 저녁에 발표 연습을 했어요. 클라라는 아직 성구에 나오는 낱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엄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클라라는 난생 처음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지요.

아빠는 “이걸 기억하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날 밤에 클라라는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클라라는 무릎을 꿇은 채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일요일 아침, 클라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어요.

마침내 순서가 돌아왔고, 클라라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클라라는 성구를 발표하다가 한 낱말에서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때 기도하며 받은 좋은 느낌이 생각났어요. 클라라는 밝게 웃으며 간증을 전했어요. 클라라는 자신이 얼마나 구주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클라라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면서 활짝 웃었어요. 클라라는 자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클라라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에 산다.

#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 가족과 대화하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느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다음 요한복음 11장 1~46절을 함께 읽고 아래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
2.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
3. 마르다는 ... 을/를 믿었다.
4. 예수님은 ... 때문에 우셨다.
5. 예수님은 ... 때문에 아버지께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6.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 그러나 몇몇 사람은 ...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이며,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죽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신다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래:** "아들 보내셨네"(어린이 노래책, 20~21쪽)

**경전:** 마태복음 11:2~5; 니파이후서 27:23.

**동영상:** Biblevideos.org에서 "Lazarus Is Raised from the Dead"를 볼 수 있습니다.

## 진 빙행

**가** 죽이 아파서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친구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인 나사로가 몹시 아프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 와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무덤 문에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영은 다시 그 몸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권능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많은 놀라운 기적들

각 기적에 대한 그림을 아래 경전 구절과 일치시켜 보세요.

마가복음 8:22~25

요한복음 5:1~9

마가복음 9:17, 23~27

마가복음 5:21~24, 35~43

마가복음 4:36~39

마태복음 14:16~21



### 경전 공부 도움말

경전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경전에 있는 성경 지도를 이용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도시에 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권유하셨습니다.

### 더 알아보기

희랍어 이름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르가 다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팔리 피 프랫  
(1807~1857)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조셉은 내게 하늘의 영원한 질서를 가르쳤다

나는 이제 영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다.

**필** 라텔피아에서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시 한 번 만나 그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 또한 그 도시와 인근에 있던 성도들과 여러 날을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 모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하늘의 영원한 질서에 대해 위대하고 영화로운 많은 원리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바로 그에게서 영원한 가족 조직, 그리고 오직 매우 지적이고 세련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소중함을 아는 관계, 그리고 행복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관계로, 형언할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성들간의 영원한 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다.

그때까지는 혈족간의 애정과 동정이라는 것을 오로지 이 필멸의 세상에만 국한된 것으로, 그리고 천국의 상태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단절시켜야 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배웠었다.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다.

그에게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며,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도록 해 주는 세련된 공감대와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에 기초를 둔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그에게서 우리가 이 애정을 가꾸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영원토록 증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결합의 결과는 하늘의 별만큼 또는 해변의 모래 알만큼 많은 후손이 될 것이라고 배웠다.

나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셀 수 없이 많은 소생들의 족장과 지고한 통치자로서

영원한 신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니는 참된 위엄과 운명에 대해 배웠다. 그에게서 나는 여성다움의 가장 높은 존엄성은 왕비와 여제사장으로서 남편 옆에 서고 또 수많은, 그리고 계속 늘어가는 자손들의 태후로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것임을 배웠다.

전에도 나는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순수하게 한층 고양되고, 이 천박한 영역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들어 올려 마치 대양과도 같이 넓게 펼쳐 주는 승화된 느낌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시며, 내 사랑하는 아내는 불멸의 영원한 동반자며, 위안자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서 내게 주어진 친절한 구원의 천사임을 느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이제 영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다. ■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79), 297~298에서 발췌



# 이번 호에서

## 청년 성인

### 인내: 기다림 이상의 의미

인내란 한 번만 배우는 교훈이 아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인내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인내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다.



42쪽

## 청소년



56쪽

### 행복한 가족이 되는 비결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아홉 가지 원리를  
가족에 적용함으로써 가족이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 어린이



### 도와주세요!

누군가  
이혼을 하려 해요

부모님이 이혼한다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감정들을 헤쳐  
나가는 데 이 기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 통찰



##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두려움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경건한 두려움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완벽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모로나이서 8:16) 구주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그분의 기초 위에 세우며, 성스러운 결심으로 성약의 길로 전진해 나간다면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밝은 빛이 필멸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쫓아낼 것(교리와 성약 50:25 참조)임을 약속합니다.”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49쪽.